

제15대 흥기삼 총장 취임

동국인 간담회 열어 ... "교육과 연구기능 확대"

흥기삼 총장이 지난 1일 대대적인 보직개편을 시작으로 본교 15대 총장으로 취임했다. 흥총장은 취임식 대신 고불법회와 '제15대 흥기삼 총장과 함께'라는 주제의 동국인 간담회를 진행한다. 오늘(3일) 오후 4시 30분부터 중앙당에서 열리는 '제15대 흥기삼 총장과 함께'는 △개회사 △삼귀의례 △총장 축하법어 △이사장 격려사 △총장 취임인사 △축사(총무원장, 동창회장) △신임총장에게 바라는 말씀(교수, 직원, 학생대표) △사후서원 △폐회사 순으로 진행된다. 이 자리에서 흥기삼 총장은 "연구와 교육 중심의 대학을 위해 노력하겠

다"는 포부를 밝히며 예정이다. 이에 본사는 지난달 17일 흥기삼 신임총장을 만나 향후 학교 운영의 전반적인 방향에 대해 들어보았다. <관련기사 7면(특집)> 흥총장은 본교의 당면 과제로 "연구와 교육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라며 학부제 재검토, 교수초빙 확대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학내·외의 가장 큰 관심사인 불교병원 개원과 관련해서는 외부 컨설팅을 통해 구체적인 개원준비를 하고 "구성원들과의 논의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본교 특성화 방안으로 흥 총장은 '불교생태학' 육성을 꼽으며 불교생태학을

특성화해 전통과 현대의 결합이라는 우리대학의 특성을 더욱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경주캠퍼스 독립에 대해서는 "경주의 독자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재단과 논의 후 1대학 2총장제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8일 정각원에서는 송석구 전 총장 이일 고불식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송 전총장은 "흥의 노력을 다한 만큼 마무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회한이 없지 않다"며 "동국 구성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조슬기 기자
choff55@donggu.ac.kr

"재정구조 열악·등록금 의존률 높아"

등록금 인상의 타당성에 대한 토론회 개최

"등록금인상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전국 교수노동조합과 전국대학노동조합의 주최로 지난달 27일 송실대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등록금 인상 요인의 부당성과 대학의 열악한 재정구조, 방만한 운영에 대해 논의됐으며 주로 대학생들이 방청석을 메워 등록금 인상에 대한 대학생들의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먼저 도마에 오른 것은 정부의 등록금 정책이었다. 첫 발제자로 나선 박거용 교수는 50년간 우리 정부는 교육받는 사람에게 비용을 전가시키는 '수익자 부담 원칙'을 고수해 등록금 인상을 방관해왔다며 "새 정부는 '자율' 타령만 할 것이 아니라 등록금 인상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올해 추진된 국공립대학의 등록금 자율화 정책의 여과

가 사립대에까지 미치고 있다"며 새 정부가 국공립대 등록금 자율화 정책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서 진행된 국공립대와 사립대의 등록금 인상은 △열악한 재정구조 △방만한 집행 △재정운영의 불투명성 △등록금 협상의 비민주성 등이 문제로 제기됐다. 특히 황희란(한국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사립대학은 기본책무도 하지 않고 있다며 "사립대학들은 철저히 등록금에 의존해 대학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대부분 사립대학들의 법인 전입금 비율은 전체 재정의 5~6%에 그치는 수준이다. <관련기사 9면(해설보도면)> 이와 관련해 박거용 교수는 "사립대학 등록금이 법인의 자산만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올해 추진된 국공립대학의 등록금 자율화 정책의 여과

가 있다"며 국가가 사학의 왜곡된 재정구조를 개선하는 데 나서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등록금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각 대학 학생들의 이야기도 함께 이어졌다. 토론자로 나선 정현진(연세대) 양은 "학교가 협상자리를 '통보용'으로 여길 때가 있다"며 실효성있는 테이블 마련을 위해서는 학교의 예결산 등 재정 정보의 공개 확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10여년째 실제 물가를 상회하는 등록금 인상은 더 이상 일부 계층의 이야기가 아닐 것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왜곡된 대학재정구조를 바로잡아야 할 주체는 바로 학내 모든 구성원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윤경 기자
itsU@donggu.ac.kr

3·1민족대회 열려 남북 종교인 주관

'평화와 통일을 위한 3·1민족대회'가 지난 1일부터 이틀간 웨라톤 워커히 호텔에서 진행됐다. 남북이 3·1민족대회를 함께 치르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남북 종교인이 공동 주관하는 이번 민족대회는 3·1운동 정신을 기념하기 위해 진행됐으며 북한의 △천도교청주연합회 △조선그리스도교연맹 △조선불교연맹 △조선가톨릭교협회 대표 105명과 남한의 △천도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조계종 대표와 시민사회단체 인사 300여 명이 대표단으로 참여했다. 대표단은 행사 첫날 남북간 화해와 협력, 민족공동 기반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3·1 민족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6·15 공동선언의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이밖에 다음날 오전 종단별 남북 공동 종교행사가 진행됐으며 오후에는 일본의 역사왜곡과 관련한 공동학술토론회가 열려 국호의 영문 표기 'KOREA'를 'COREA'로 바꾸는 문제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본사 신임 발행인



본사 발행인이 흥기삼(국어국문학) 교수로 바뀌었다. 흥교수는 본교 15대 총장으로 서 본교 기획조정실장, 문과대학장, 한국문화연구원 소장 등을 역임했다.

본사 신임 주간교수



본사 주간교수 이상영(서울캠퍼스 법학)교수가 임명됐다. 신임 이상영 주간교수는 본교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독일 Freiburg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수여했으며 지난 99년 본교에 부임했다.

2003학년도 입학식 개최

서울캠 4일 만해광장·경주캠 5일 문무관

2003학년도 서울캠퍼스 신입생 입학식이 내일(4일) 오전 11시 만해광장에서 열린다. 이번 입학식은 서정대 이사장, 흥기삼(국어국문학) 총장, 법장 총무원장 스님, 류주형 총동창회장, 신임생과 학부모가 참석한 가운데 △삼귀의례 △총장 입학허가 선언 △

신입생 선서 △이사장 치사 △총무원장, 총동창회장 축사 △장학증서 수여 △사후서원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신입생 선서는 입학생 3천78명을 대표하여 수능 표준변환 372점을 받은 수석합격자 김민재(연극영상1)군이 한다. 경주캠퍼스 입학식은 오는 5일 오전 11시 문무관에서 치러진다. 경주캠퍼스 입학생은 총 2천252명이며 수석합격자는 수능 표준변환점수 391점을 받은 한의대 류법진(한의예)군이 차지했다. 한편, 이번 2003년도 입시는 1·2차 수시모집과 정시 가, 나, 다군 분할모집으로 실시됐다. 특히 1차 수시모집에서 담임추천자와 연기재능우수자 전형이 신설됐으며 2차 수시모집에서 학교장 추천을 폐지하고 담임추천으로만 선발했다. 또한 특목고 출신자 전형도 새롭게 포함시켰다.

대학부
dmz@donggu.ac.kr



신나는 출발 ... 지난 27일 진행된 새내기 새로 배움터 (이하 새터) 1진 중앙공연에서 민속극 연구회 '발'이 신명난 공연을 펼치고 있다. 이번 공연에서 새내기들은 '그들을 위한' 무대에 흥겨워했다. 최성민 기자 qwertewq@donggu.ac.kr

6~7면 이사장·총장 인터뷰

본교 교원 인사발령

본교가 지난 1일 보직인사를 단행했다. 보직인사는 서울캠퍼스 △부총장=윤현보(전자공학) △대학원장=박인국(생물학) △영양정보통신대학원장=민병목(영화영상학) △불교대학원장=한태식(신학) △행정대학원장=이황우(경찰행정학) △경영대학원장=김태홍(국제통상학) △교육대학원장=정진환(교육학) △언론정보대학원장=김진철(정치외교학) △산업기술환경대학원장=조암(산업시스템공학) △문화예술대학원장=조승환(미술학) △국제정보대학원장=서윤길(불교학) △불교대학원장=이법산(신학) △문과대학원장=임효일(독일학) △이과대학원장=이종준(수학) △법과대학원장=손성(법학) △사회과학대학원장=김보현(행정학) △경영대학원장=차수련(경영학) △생명지인과학대학원장=노완섭(식품공학) △공과대학원장=엄기환(전자공학) △정보산업대학원장=조성구(산업시스템공학) △사법대학원장=한용환(국어교육) △예술대학원장=김홍우(연극학) △야간

강좌교원처장=김석용(경영학) △정각원장=이법산(신학) △기획인사처장=이영환(경제학) △대의협력처장=유덕기(생명자원산업융합학) △교무처장=김무봉(국어국문학) △연구처장=여인형(화학) △학생처장=이관재(통계학) △정보관리실장=이호영(기계공학) △중앙도서관장=최인식(철학) △불교문화연구원장=서윤길(불교학) △박물관장=장홍식(미술사학) △보건의료정보통신대학원장=이명종(한의학) △실용농장장=김용욱(식물자원학) △연습림관리소장=윤화영(산림자원학) △비키니수행원장=강문선(신학) △동대신문사 편집인 겸 주간=이상영(법학) △동대신문사 부주간(동국포스트)=장시기(영어영문학) △사회교육원장=곽준규(교육학) △언어연구교육원장=봉일원(독일학) △산학기술협력센터소장=백수현(전기공학) △창업지원단장=백수현(전기공학) △기상대학장=김성훈(교육학) △학생상담센터소장=권동희(지리교육) △교양교육운영실장=고진호(교육학) △연구개발팀장=안정택(경제학) 등이다. <2면으로 이어짐>

보리소

일일시호일 (日日是好日)

어느 날 문헌선사가 제자들에게 말했다. "보름 전의 일은 묻지 않겠다. 보름 이후의 일은 한마디의 시구로 표현해 보라." 제자들이 고민을 거듭했으나, 마땅한 시구가 떠오르지 않았다. 문헌선사가 제자들에게 말했다. "일일시호일(日日是好日)." 중국 당나라 말기 문헌선사(雲門禪師, 864~949)가 던진 이 가르침은 오늘날 세간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말 중 하나이다. '날마다 좋은 날 되소서'라는 이 말은 욕망에 사

로잡하지 않은 편안하고 맑은 경지를 의미한다. '일상생활 그대로가 진리'라는 마조선사(馬祖禪師, 709~788)의 평상심시도(平常心是道)와도 일맥상통하는 말이다. 다시 개학이다. 모든 게 새롭다. 그것은 또 설렘이다. 새롭다는 말이 우리에게 설렘으로 다가서는 것은 희망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금, 모두가 벅찬 희망의 감격을 나누고 있다. 정부와 대한불교조계종과 학교가 새로운 지도자를 맞아 새롭게 출범했다. 동악엔 새내기들의 힘찬 함성이 목벽골의 메

아리가 되어 희망을 노래하고 있다. 우리는 흔히 새롭게 출발하는 시점에서 각오를 다진다. 정말 잘 해보겠다고 말이다. 그러나 끝은 부끄러운 모습이었다. 일일시호일과는 거리가 멀었다. 학교는 어떤가? 이제 막 출범한 새 총장 체제가 임기 내내 열두에 뛰어야 할 화두(話頭)가 바로 그것일 게다. 그것은 첫 발을 내딛은 새내기들의 희망과도 결코 무관하지 않다. 새로운 출발점에서 모두가 인과응보(因果應報)라는 불교적 진리에 천착해주시길 기대해

본다. '일일시호일'이어야 하겠기에 말이다. 하춘생
주간불교신문사 편집부장
보리소 필진이 이번주부터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김용표(불교대학 불교학과)> <김효성(불교대학 인도철학과)> <소운스님(불교문화연구원 전임연구원)> <김형균(동쪽나라 대표)> <하춘생(주간불교 편집부장)>

지면안내

- 3면 등록금인상 무엇이 문제인가 계속되는 등록금 인상의 근본 원인을 본교 수위구조를 통해 살펴본다.
- 4면 노정부 감시 포인트
- 5면 친일문학 되짚어 보기

동대신문 기획광고



'걸음마'하는 마음으로 ...

2003년 동대신문사가 한걸음, 한걸음 독자 여러분께 다가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하나, 동대신문 모니터 요원을 모집합니다. - 모집자격 : 학내 구성원, 모집일 : 3월 7일(금)
하나, 각 면의 칼럼진설, 여론면 논단의 전문 필진 구성 등으로 독자 여러분의 요구에 부응해 가겠습니다.
하나, 이외에도 '열린 신문'을 지향해 다양한 학내 여론을 담겠습니다.

앞으로도 동대신문을 향한 독자 여러분의 꾸준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동대신문사

발전기금 060-700-0119

본사사령

- ◇임기만료 <편집장 = 손상민(사과대 사회4)> <편집부장 = 형진우(인문대 국문4)> <대학부장 = 김도영(사과대 사회4)> <사회부장 = 우정현(사과대 정외4)> <학술부장 겸 생활부장 = 김현정(사과대 신빙4)> <기획부장 = 김혜진(문과대 영문4)> <문화부장 = 이수경(문과대 국문4)> <문화부장 = 이성희(문과대 문창4)> <여론부장 겸 사진부장 = 엄태규(사과대 사회4)>
- ◇신임부장 <편집장 겸 학술부장 = 한보라(사과대 경제3)> <편집부장 = 신정화(공과대 정보통신3)> <대학부장 = 조슬기(문과대 영문3)> <사회부장 겸 여론부장 = 송윤경(사과대 사회3)> <기획부장 겸 사진부장 = 김진성(사과대 신빙3)> <문화부장 겸 생활부장 = 김하나(예술대 문창3)> <문화부장 = 이지현(인문대 영문3)>

- 이상 3월 3일자

각 강의마다 커뮤니티 개설 수업자료 공유 등 가능

이번 학기부터 본교 홈페이지에 각 강의마다 커뮤니티를 개설하는 수업지원시스템(e-class)이 도입된다.

수업지원시스템은 커뮤니티 내에 강좌별 폴더가 개설되고 수강을 신청한 학생들이 자동으로 회원 가입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수업자료공유 △과제물제출 △질문·응답 등을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정보관리실의 한 관계자는 “커뮤니티를 통해 교수와 학생간의 수업관련정보 교환이 원활하게 이뤄져 쌍방향 수업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독립생활 출범 지원 행정부분 준비 미흡

생활협동조합(이사장=유덕기·생명신림자원유통학, 이하 생협) 독립법인이 오는 4월 말 이후 출범할 전망이다.

생협은 지난달 20일 열린 생협 이사회에서 운영규정안을 통과시켜 급여·회계 규정 등을 제외한 독립법인 관련 규정안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독립법인 출범을 위한 행정부분이 준비되지 않아 당초 계획보다 한달 이상 늦어졌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생활발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바 있는 유덕기 교수가 선임 생협 이사장으로 선임됐다.

축구부, 대통령배대회 출전 오늘 할렐루야와 첫 경기

본교 축구부(감독=김승기)가 '대통령배 전국 축구대회'에 출전해 오늘(3일) 오후 3시 15분 용인종합운동장에서 할렐루야와 첫 경기를 갖는다.

이번 대회는 오는 16일까지 효창운동장과 용인종합운동장에서 진행되며, 예선은 조별리그로 진행되고 결선은 각 조의 상위 2팀이 토너먼트로 진행된다.

본교는 △한려대 △할렐루야 △세계사이버대와 함께 12조에 편성됐다.

가족장학금 접수 입학금 감면 혜택

가족장학금 접수가 오늘(3일)부터 14일까지 장학과에서 실시된다.

이번 장학금은 형제가 함께 본교에 재학(휴학)한 학생에 한해 입학금 감면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다.

제출서류는 △형제 재학(휴학)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이다.

2002년 하반기 결산감사 분석

책임감 부족·관리소홀로 대부분 무산

철저한 감사통해 불신 해소해야

지난달 24일 발표된 2002학년도 하반기 결산감사 결과 10개 단과대 학생회에 대한 감사가 진행되지 않고 총학생회를 비롯한 중앙단위에 대한 감사도 뒤늦게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결과는 <표>와 같다.

특히 총대의원회 회칙에 '하반기 결산감사는 11월에 진행한다'고 명시돼있어 당시 총대의원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총대 비대위)를 비롯한 각 단과대 대의원들의 책임성 부족이 문제로 지적된다.

지난 34대 총대 비대위는 지난해 11월 감사특별위원회를 열어 각 단과대 자체적으로 하반기 감사를 진행하고 중앙단위의 경우 총대 비대위가 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감사를 담당한 총대 비대위 집행부와 각 단과대 대의원장들이 감사를 진행하지 않은 채 임기를 마쳤다. 또한 10개 단과대에서 대의원장이 선출되지 않아

징계내용	단 위	시행세척 및 징계사유
주의	졸업준비위원회	감사자료 내용 미비
경고	총학생회	감사자료 미제출 감사자료 내용 미비
예산정지 4주	동아리연합회	감사자료 미제출 감사자료 내용 미비 예산의 비효율적 사용

이 사실이 이월되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임상선 당시 총대 사무국장은 “각 단과대에서 감사가 진행된 중인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말해 감사에 대한 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지난 2월 35대 총대의원회(의장=임수옥·화공4, 이하 총대)가 중앙단위 감사를 진행하고 단과대의 경우 집행부 부족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생회 사업은 학생회비로 운영되는 만큼 투명성이 우선돼야 한다. 특히 지난 새터사고 이면계약 이후 학생회에 대한 학생들이 불신이 높은 만큼 감사주체들은 철저히 감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결정했다. 새터 부정기감사는 이번 달 중순경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임수옥 총대의원장은 “대의원장과 대의원에게 사전교양을 실시해 자체감사가 무리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생회 사업은 학생회비로 운영되는 만큼 투명성이 우선돼야 한다. 특히 지난 새터사고 이면계약 이후 학생회에 대한 학생들이 불신이 높은 만큼 감사주체들은 철저히 감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최우석 기자
kauri21@dongguk.edu



양심>업적(?) ... 지난달 20일 중앙도서관에서 개관기념 미담 서정주 유품전이 열렸다. 이에 총학생회 비대위는 “친일문학인의 유품전을 개최하는 것에 반대한다”며 유품전 중단을 요구했다.

구교육원장=신승운(영어영문학)	박동연(조경학)	△동국의료원장=홍기삼(국어국문학)
△금강생활관장=오영석(행정학)	△동국대대학장=이영현(의학)	△의과대학부속 경주병원장=이창우(의학)
△한양대학교학장=신홍목(한의학)	△한양대학교학부속 포항병원장=이창우(의학)	△한양대학교학부속 경주한방병원장=윤종화(한의학)
△의과대학장=고복현(의학)	△한양대학교학부속 서울강남한방병원장=정지현(한의학)	△한양의과대학부속 서울강남한방병원장=정지현(한의학)
△야간강좌교과처장=김오우(경영학)	△한양대학교학부속 서울강남한방병원장=정지현(한의학)	△한양의과대학부속 서울강남한방병원장=정지현(한의학)
△정각원장=최창식(불교학)	△한양대학교학부속 서울강남한방병원장=정지현(한의학)	△한양의과대학부속 서울강남한방병원장=정지현(한의학)
△기회처장=배의용(철학)	△한양대학교학부속 서울강남한방병원장=정지현(한의학)	△한양의과대학부속 서울강남한방병원장=정지현(한의학)
△교무처장=김영동(국어국문학)	△한양대학교학부속 서울강남한방병원장=정지현(한의학)	△한양의과대학부속 서울강남한방병원장=정지현(한의학)
△학생처장=진대호(수학교육)	△한양대학교학부속 서울강남한방병원장=정지현(한의학)	△한양의과대학부속 서울강남한방병원장=정지현(한의학)
△정보관리실장=조태경(정보통계학)	△한양대학교학부속 서울강남한방병원장=정지현(한의학)	△한양의과대학부속 서울강남한방병원장=정지현(한의학)
△도서관장=윤석성(국어국문학)	△한양대학교학부속 서울강남한방병원장=정지현(한의학)	△한양의과대학부속 서울강남한방병원장=정지현(한의학)
△박물관장=김길웅(고고미술사학)	△한양대학교학부속 서울강남한방병원장=정지현(한의학)	△한양의과대학부속 서울강남한방병원장=정지현(한의학)
△언어연	△한양대학교학부속 서울강남한방병원장=정지현(한의학)	△한양의과대학부속 서울강남한방병원장=정지현(한의학)

최우석 기자
kauri21@dongguk.edu

노후된 차량 지급 ... 새터 지연 기회사 계약위반에 대한 법적조치 논의

2003년 새터평가

2003년 새내기 새로 배움터(이하 새터)의 차량계약을 담당 한 기회사가 계약을 위반해 새터 1진(법과대, 사과대, 생자대, 예술대)과 정산대에 노후한 차량이 지급돼 문제가 됐다.

이번 새터는 그동안과 달리 각 단과대에서 행사를 계획·진행하고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임수옥·화공4, 이하 비대위)는 문과대를 제외한 단과대의 속소, 차량 계약 등 단체 예약 부분을 전담했다. 또한 그동안 총학생회가 직접 차량계약을 한 것과 달리 기회사를 통해 차량 등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기회사와 계약했으며,

계약서에 “2000년도 이후 출고된 차량을 지원할 것”이라는 추가 조항을 명시했다. 이는 2000년 새터 사고의 원인 중 하나가 노후한 차량을 이용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회사가 총학생회 비대위와 했던 계약과 달리 차량 계약 시 추가 조항을 명시하지 않아 총 30여대 차량 중 12대가 2000년도 이전 출고 차량으로 지원돼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총학생회 비대위가 차량 교환을 요구해 출발예정시간보다 약 4시간 늦은 시간에 출발했다.

또한 출발이 늦어지자 새터 1진의 경우 각 단과대 새터 주체들이 4개 단과대 공통 일정이었다던 중앙공연을 취소하기로 결정한 후 이를 동아리 측에 통보해 문제가 됐다.

이에 몇몇 동아리가 새터 주체들에게 논의 자리를 요구했고 중앙공연은 축소 진행됐다. 이와 관련해 김민희(가교3) ‘탈’회장은 “추최자들의 일방적인 태도에 문제가 있었다”며 “이는 중앙공연을 위해 선발대로 새터 장소에 먼저 도착한 60여명의 동아리 회원들을 무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총학생회 비대위는 이번 문제와 관련해 총학생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기회사의 계약 위반에 대한 법적 조치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새터는 총학생회와 각 단과대 학생회가 신입생들에게 선보이는 학기 첫 행사이다.

이번 일에 새내기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비대위는 조속한 시일내에 투명히 해결해야 할 것이다.

김진성 기자
yearn@dongguk.edu

한전부터

무용지물

○...학교 안내도를 보고 도서관을 찾는 신입생들이 종종 길을 헤맨다는데.

알아보니 도서관이 방학 중 이전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안내도가 수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신입생들의 경우 학교 안내도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빠른 시일내에 수정이 필요하지 않음지.

이에 본 회전문대자 왈, “도서관 찾기 성공확률 ⅓, 이번엔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조기등록

○...본교 2003학년도 학사달력을 본 학생들에게는 낯다른 주의사항이 필요했다는데.

이유인즉 학사달력 제작 후 등록기간이 연장돼 등록마감일이 28일 입에도 불구하고 22일로 기재됐기 때문이라고.

학생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공지하거나 인터넷 학사달력의 내용을 수정했어야 하지 않음지.

이에 본 회전문대자 왈, “2003학년도 학사달력, 내용변경은 OK 수정은 NO?!”

예약필수

○...지난 오리엔테이션 기간 중 과별 시간 때 일부학과 학생과 새내기들이 우왕좌왕했다는데.

알아보니 강의실 사용 신청을 미리 하지 않아 과별 시간 직전까지 강의실을 빌리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이로 인해 학생들과 경비직원간에 실랑이가 벌어지고, 과별 시간도 지연됐으니.

이에 본 회전문대자 왈, “예고 있는 사고 없고 예약 없는 사용 없다(?!)”

수취인 불명(?)

○...요즘 동아리 학생들이 사라진 편지의 행방을 묻는 일이 종종 있다는데.

알아보니 각 동아리에 배정된 우편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자가 우편물을 분리하지 않고 한 곳에 모아뒀던 우편물이 넘쳐 바닥에 흩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이는 우편물이 분실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은 것이니.

이에 본 회전문대자 왈 “방학과 동시에 사라진 당신의 책임감, 개강과 함께 되살려라.”

봄학기 사회봉사 단원모집(학점신청)

2003학년도 봄 학기 사회봉사단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신청 자격 : 재학생
- 신청 기간 : 2003. 3. 10(월) ~ 3. 12(수)
- 봉사활동 기간 : 2003. 3. 17(월) ~ 2003. 5. 24(토)
- 봉사활동 방법 : 활동내용 및 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음.
(※ 봉사활동 안내 자료 : 인터넷 게시 및 각 단과대학 교학과, 동국참사람봉사단에 비치되어 있음.)
- 봉사활동 대상 기관 : 옥수종합사회복지관 외 130여개 기관
- 봉사활동 신청 장소 : 동국참사람봉사단(본관 3층)
- 사회봉사활동 학점 신청 및 성적처리 방법
가. 학점신청 : 사회봉사활동 신청서를 참사람봉사단에 반드시 제출해야 함.
나. 평가방법 : Pass 또는 Fail
다. 성적평가
(1) 학점 인정 : 봄 학기 기간 중 33시간 이상 활동 시 (교과목: 사회봉사, 이수구분: 자유선택, 1학점 Pass)인정
(2) 학점인정시기 : ▶ 겨울학기 · 봄학기 활동자(1학기 기말고사 성적에 학점 반영) ▶ 여름학기 · 가을학기 활동자(2학기 기말고사 성적에 학점 반영)
(3) 전체 졸업이수 학점에는 포함하나 평균성적 산출시에는 포함하지 않음.
(4) Fail의 경우 학적부 및 학업성적표에 기록하지 않음.
※ 사회봉사 학점은 수강신청 제한학점을 초과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졸업이수 학점으로는 재학기간 중 2학점까지 인정함.

- 동국참사람봉사단 예비교육(이론 및 현장체험학습)
가. 일 시 : 2003. 3. 15(토)08: 20~17:00
나. 장 소 : ▶ 특 강 - 본교 중강당 08: 20까지 『시간 엄수』
▶ 현장체험학습 - 한사랑 마을 · 한림원(경기도 광주 소재)
※ 현장체험학습은 예비교육 대상자 전원 학교 버스로 이동
※ 단, 예비교육은 봉사활동 실시 전에 받아야 하며, 재학기간 중 1회 이상만 이수하면 됨

■ 최근 상당수의 기업에서는 사회봉사활동의 경험을 중요시하여 채용 과정에서 봉사활동 여부를 반영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동국참사람봉사단

전통사찰음식 조리강과 수강생 모집

전통사찰음식을 통하여 불교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자 제 6기 전통 사찰음식 조리강과 수강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강 사 : 선재스님(사찰음식연구가, 가정교육과 겸임교수)
- 교육기간 : 2003년 3월 19일 ~ 6월 4일(10회), 매주 수요일 10:00-13:00
- 대 상 : 동국인 남녀 누구나 선착순 30명
- 진행방식 : 이론 + 조리실습 + 시식
- 교육장소 : 학림관 조리실습실(사범대 1층)
- 수강료 : 70,000원(재료비 포함)
- 접 수 : 2002년 3월 10일(월) ~ 3월 14일(금)
- 주 최 : 동국대학교 여학생실 · 가정교육과
- 문 의 : 여학생실
(☎ 2260-3056, http://home.dongguk.edu/user/gender/)

여학생실 · 가정교육과

언어연구교육원 봄학기 특강

EVENT> 선착순 20명 예쁜 보조 가방 증정!!

	기본 영어회화	Me & My life 1 (초급)	Me & My life 2 (중급)	Writing & Speaking	Interview English	CBT TOEFL	TOEIC (기본·중급) 10주 과정
강의 시간	8:00-9:00 17:00-8:00	17:00-18:30 (월,화,목)	17:00-8:30 (월,화,목)	8:00-9:00 17:00-18:00	8:00-9:00	17:00-18:00	9:00-10:00 18:00-19:00
정 원	15명	15명	15명	15명	15명	40명	40명
교수	초빙교수 (Native Speaker)	David Green	Ivon Katz	Mary-Ann Kerry	Modesto Tumacder	오금동	안지혜 김성중
수강료	8만원	8만5천원	8만5천원	10만원	9만원	10만원	18만원
강의 기간	단, 일반은 모든 수업 1만원 추가 1차 / 2003년 3월 17일(월) - 4월 18일(금) : 5주과정 (토익의 경우, 10주 과정; 2회 분할납부 가능. 단, 4월180전 완납요망) 2차 / 5월 12일(월) - 6월 16일(월) : 5주과정 월 ~ 목 60분 강의 접수기간: 개강 2주일전부터						
문의 및 접수	위치 : 동국대학교 혜화관(G) 1층, 문의전화: 2260-3470~1 E-MAIL: today@dongguk.edu homepage: http://today.dgu.ac.kr 근무시간: 오전 9:00~오후 5:00						

- | | |
|--|---|
| 수강생 특혜
1. 특강 수강시 무료 웹토의 수강기회
2. 모의 토익 테스트 무료 응시 혜택
3. 2과목 동시 수강 시 1만원 할인 | 언어연구교육원 특징
1. 학원과 차별화된 우수인 강사진
2. 전용강의실의 쾌적한 수업분위기
3.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
4. 타 사설학원에 비해 저렴한 수업료 (교재 무료 제공) |
|--|---|

동국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The Center for Language Research and Instruction



1. 수입현황
2. 지출현황
3. 등록금 인상근거 분석
4. 등록금 협상

매년 불이연 등록금 협상으로 대학기가 시끄럽다. 올해 또한 본교를 비롯한 대다수 사립대학들이 등록금을 5%~10% 인상함에 따라 학교와 학생간의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매년 등록금이 오르는 근본적인 이유를 대학 재정구조를 통해 파악하고 등록금 협상의 문제점을 짚어본다.

재단전입금, 전체 재정의 2.5%에 불과

수익사업 2곳 ... 전입금 확충위한 중단차원 노력 필요

‘학교법인’은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에 필요한 시설·설비와 당해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갖추어야 하며... 이는 사립학교법 제5조 제1항에 명시된 사립법인의 교육재정 부담 책임에 대한 부분이다. 사립법인은 국가로부터 교육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교육사업을 시행하고 국가와 마찬가지로 교육사업에 필요한 교육재정 부담 의무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표1>에서도 알 수 있듯 현 사립대의 법인전입금은 운영수입 대비 약5~6%이며 그 비율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국가의 보조금이 몇 년째 4%에 머물고 있어 등록금 의존도가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법인전입금=본교 전입금은 전체예산의 약 2.5%로 사립대 평균의 절반 수준이다. 이는 본교와 비슷한 학생 규모를 가지고 있는 대학(학생 수 1만 5천명 이상 2만명 미만)의 법인전입금 비율인 3%보다도 낮은 수치다 <표2>.

<표2> 운영수입대비 법인전입금 비율 (단위: 대학수, %)

구분	2만명 이상		1만5천명 이상 2만명 미만		1만명 이상 1만5천명 미만		5천명 이상 1만명 미만		5천명 미만		계	
	대학수	비율	대학수	비율	대학수	비율	대학수	비율	대학수	비율	대학수	비율
10%~	1	6.7	1	10.0	1	4.3	3	10.0	5	23.8	11	11.1
5%~10%	3	20.0	0	0.0	3	13.0	2	6.7	6	28.6	14	14.1
3%~5%	3	20.0	0	0.0	3	13.0	1	3.3	2	9.5	9	9.1
1%~3%	2	13.3	6	60.0	6	26.1	9	30.0	6	28.6	29	29.3
~1%	6	40.0	3	30.0	9	39.1	11	36.7	2	9.5	31	31.3
-	0	0.0	0	0.0	1	4.3	4	13.3	0	0.0	5	5.1
합계	15	100.0	10	100.0	23	100.0	30	100.0	21	100.0	99	100.0

또한 교육의 1차적 책임을 지고 있는 국가의 보조금이 몇 년째 4%에 머물고 있어 등록금 의존도가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법인전입금=본교 전입금은 전체예산의 약 2.5%로 사립대 평균의 절반 수준이다. 이는 본교와 비슷한 학생 규모를 가지고 있는 대학(학생 수 1만 5천명 이상 2만명 미만)의 법인전입금 비율인 3%보다도 낮은 수치다 <표2>.

이처럼 본교의 법인전입금이 미비한 이유는 학교 운영에 대한 법인의 책임성 부족을 들 수 있다. 현재 재단은 전입금 확충을 위한 수익사업이 전산원과 수영장 뿐이다. 이와 관련해 오선 임(국교4) 총학생회 학원 자주화 투쟁 위원장은 “이는 재단측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라며 “수익사업을 증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본교 재단인 조계종이 타대학의 재단에 비해 비교적 안전하고 탄탄한 재정 기반을 가지고 있음을 미루어 볼 때 이는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 그러나 법인 전입금이 턱없이 부족한 현상을 본교만의 문제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 대종소이한 차이란 보일 뿐 법규정액에 훨씬 못미치는 금액을 전입하고 있는 것은 대부분의 사립대도 마찬가지기 때문이다. <표1>참조.

<표1> 운영수입대비 법인전입금 비율 (단위: 천원, %)

연도	운영수입	법인전입금	비율
2001년	7,786,609,977	433,919,538	5.6
2000년	6,916,529,616	369,076,612	5.3
1999년	6,194,887,529	440,775,784	7.1
1998년	5,851,086,839	349,276,366	6.0

또한 국고보조금이 대학별 평가사업 결과에 따라 차등지원 돼 보조금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야기시킨다는 지적이 있다. 최근 5년간 지급된 국고보조금총액을 살펴보면 한 대학이 보조금의 약 7%를 독식하고 있으며, 상위 20개 대학이 보조금의 절반 이상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정이 전국대학노동조합 정책국장은 “지원사업분야를 나누었지만 그 기준은 비슷한 대학에 집중 투자가 되는 것”이라며 지원방식이 재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대부분 사립대학은 학교 재정부담의 의무를 방기한 채 학생과 학부모에게 그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 사립법인은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재정 확보를 해야하는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조슬기 기자 chof55@dongguk.edu

사설

미당 유품전, 문제있다

본교 도서관 전시실에서는 지난달 20일부터 ‘중앙도서관 신축 개관기념 미당 서정주 선생 유품 전’이 열리고 있다. 동양 내 에서 이에 대한 관심이 높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는 이 유품 전에 대한 여러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는 미당이 과연 전시회를 열어 기념할 만큼의 역사적 인물로 평가할 수 있는냐는 점이다. 미당이 과거 일제와 군사독재정권의 편에 섰던 문인이라는 점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일본을 위해 목숨을 바친 조선인 가미가제 청년의 찬양 시를 써 조선인을 전장터에 내몬 사람이 바로 미당이었고, 전두환 군부독재 정권을 찬양하고 반독재 운동에 앞장선 이들을 비난했던 인물 또한 미당이였다. 이러한 그의 행적은 ‘오장 마쓰이 송가’ 전두환 탄신 56회 추시’와 같은 시만 봐도 그대로 드러난다. 이를 두고 후자는 “친일 행위를 했다는 치더라도 그의 문학적 업적만큼은 그의 행적과 분리해 평가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한다. 하지만 사회적 영향력을 지닌 지식인으로써 그의 과오는 오히려 들춰내고 단죄해야지, 문학적 업적으로 치부하거나 면죄부를 주어서는 안된다. 더욱이 그의 기념전을 ‘민족대학’이라 내세우는 학교에서, 그것도 공적 공간인 도서관에서 열리고 있다는 사실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일 뿐 아니라 그것이 미칠 영향력을 간과한 일이다. 그의 삶과 사상, 문학세계를 굳이 기념하고자 했다면 그의 친일행위와 사상, 친일문학작품 역시 함께 다루고, 평가되는 것이 옳았다. 또한 그렇게 됐을 때, 유품 전을 관람하는 이들에게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되며, 학교의 공적기관으로서 도서관의 역할을 상실하지 않는 것이 된다. 한편, 유품 전 개최까지 과정의 문제 역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기념 유품 전을 인물의 역사적인 평가는 물론 학내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 절차 없이 학교 측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번 ‘미당 논쟁’을 계기로 동양 내에서 미당에 대한 재평가 논의가 더욱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 미당이 동국인이었기에, 동국 구성원으로서 더욱 미당에 대한 입장 정리와 표명은 의미있는 절차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동국만평

성덕환 pybumbuk@hanmail.net



2003년 전공결정분석

모집단위 세분화 성과 거뒀

일부 단과대 전공 편중 완화

2002학년도 입학생들의 전공배정 결과 일부 학과에 지원자가 편중되는 현상을 보였으나 지난해 모집단위 세분화를 실시한 단과대의 경우 전공편중 현상이 일부 해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3학년도 전공결정 결과에 따르면 △행정학과=2.3대 1 △건축학과=2.2대 1의 경쟁률을 보여 인기학과에 대한 높은 선호도를 나타냈다. 그러나 지난해 학과의 연계성, 인기학과에 대한 전공편중 현상 완화 등을 이유로 모집단위를 세분화했던 문과대를 비롯한

3개 단과대는 전공 편중현상이 크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과대의 경우 지난해 어문학부 계열인 국어국문학, 영어영문학 등에 지원자가 편중돼 인문학부 계열의 지원자가 한 자리수에 그쳤던 것과 달리 사학과가 1.5대 1의 경쟁률을 보이는 등 지원자가 고루 분포했다. 이와 관련해 김항배(철학) 전 문과대학장은 “그동안 집체됐던 기초학문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보산업대와 경영대 역시 모집단위를 세분화해 편중현상이 심했던 컴퓨터공학과 경영학과가 각각 1.4대 1, 1대 1로 전공편중 현상이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번 전공결정에서는 문과대를 비롯한 4개 단과대가 전공결정 횟수를 2회에서 2학기이수 후 한차례만 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이는 학생들의 전공선택에 대한 고민부족과 전공선택이 늦어지면서 발생하는 전공의 부실화 등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교양교육운영실(실장=고진호·교육학)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각 단과대학의 의견을 반영해 2학기 이후 전원 전공결정을 하도록 확대해 나갈 방

침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전공에 대한 사전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번에 전공선택을 한 이예원(영문2) 군은 “전공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접하는데 한계를 느꼈었다”고 말했다. 현재 전공설명회의 경우 전공선택을 하기 직전에 1~2차례만 진행되며, 프로그램 또한 매년 똑같은 비디오키가 상영되는 등 형식적이라는 지적이 있다. 또한 현재 1학년 전공이 개설된 학과가 전체 학과의 50%에도 미치지 못해 전공탐색 기회가 제한된다. 모집단위 광역회에서 인기학과에 대한 전공편중 현상과 전공부실화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모집단위 세분화와 같은 각 단과대학의 특성에 맞는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최우석 기자 kauri21@dongguk.edu

동대신문 DONGGUK UNIVERSITY PRESS 1950년 4월 15일 창간(주간)

발행인: 홍기삼
편집인: 김주환
부주장: 구본철
편집국장: 류변성
편집장: 한보라

홍기삼
이상영
구본철
류변성
한보라

인터넷 동대신문 http://dgupress.dongguk.ac.kr
인터넷 동국대학교 http://www.dongguk.edu
구독문의: (02)2260-3491·2, 동대신문 홈페이지

서울캠퍼스 (우)100-715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3가 26 경주캠퍼스 (우)700-714 경북 경주시 석정동 707
전화 (02)2260-3491·2 팩스 (02)2279-1270 전화 (054)770-2058 팩스 (054)770-2057

동약론

공멸(?) 공존(!)



“여보세요. 03화번 00시죠? 저는 같은 단과대학 선배 00입니다. 저랑 성경공부 같이 하실래요?”

며칠전 한 신입생은 이상한 전화를 받았다. 어느 기독교 단체의 한 회원이 자신의 전화번호를 알아내 단과대학 선배라고 속이며 전화를 한 것이다.

매년 새학기가 되면 기독교 단체는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전도행위를 활발하게 진행한다. 그러나 계속 따라다니며 기독교를 믿을 것을 강요하고 심지어 전화까지 하는 스토킹적인 전도행위에 학생들이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다.

“왜 저렇게 극성을 부리는 걸까?” “다른 학교는 우리 학교처럼 이렇게 심하지는 않다는데...”

기독교 단체들은 본교를 ‘뎀투맨식’ 전도행위가 가장 필요한 대학으로 꼽는다. 불교종립학교인 본교에서는 기독교 단체를 정식 동아리로 인정하지 않아 공식활동을 금지함은 물론 대자보다 불리는 즉시 철거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 사람씩 붙잡고 따라다니는 식의 전도행위가 불가피하다는게 기독교 단체들의 설명이다.

그러나 정도가 지나친 이들의 전도행위를 학교 탓으로만 돌리는 것 또한 무리가 있다.

기독교 단체들은 그 동안 팔정도화 연합회 등에서 기독교 종교행사를 진행하는 등 불교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 물의를 빚은 적이 많기 때문이다.

또한 2000년 기독교 동아리가 정식 동아리로 인정되기 직전에 일어난 훼손사건은 범인이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기독교 모임에 대한 학내 여론을 악화시키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누구에게든 신앙의 자유는 소중한 것이며 지켜져야 한다. 따라서 타인에게 자신의 종교를 강요하는 자세를 버려야 할 것이며 다른 종교에 폐쇄적인 모습을 버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양한 종교가 상호 존중하는 가운데 공존할 수 있는 동약이 되길 기대한다.

최우석 기자

kauri21@dongguk.edu



노대통령! 3월엔 두 가지만 잘하면 점수땀니다, 따고요~

지난달 25일 노무현 정부가 출범했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지금 '2030 유권자' 혁명은 선거참여에서 이제 '감시참여'로 이어질 때다. 이에 3월 한달 동안 대학생 유권자들이 특히 관심을 기울여야 할 노 정부의 활동을 짚어보고 각 분야에 대한 학생들의 '감시 선언'도 함께 다뤄본다. 편집자

1 대학교육 ... 개방할까? 보호할까?

2월 25일 '참여정부'를 표방하며 노무현 대통령이 공식 취임했다. 언론을 통해 그의 드라마틱한 정치역정이나 깜짝놀랄(?) 몇몇 각료 인선 소식을 접하면, 확실히 이번 정권은 '뭔가 다를 것'이란 대중적 꺼도 부풀어오르기 마련이다.

그러나 기대가 큰 만큼 우려도 큰 법이다. 앞선 교육개방 입법조치 처리문제가 3월말로 예정된 서비스교역일반협정(이하 'GATS') 양허안과 농업개방 양허안 제출에 노동자 민중의 관심이 집중된다.

특히 교육개방은 대중의 이해와 '평등' 관념에 직접 맞닿아 있어 이 처리를 놓고 노무현 정권의 성격이 좀더 분명해 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노무현은 교육개방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피해 왔으나 대선 기간 중 '소극적 개방론'임을 시인했다.

당선 이후 개방론은 좀더 강경해졌다. 지난 1월 17일 노당선사는 미국과 유럽 기업가 및 투자자들

과의 조찬회담에서, 교육과 의료부문 개방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공언하며 교육개방을 기정사실화했다.

경제자유구역에 외국 자본을 적극 유치하고, '북방특수'를 열기 위해 경제부처를 위시한 동북아중심국태스크포스를 두겠다는 구체적인 계획까지 마련해 놓았다.

더 우려스런 대목 하나. 노무현 정권에서 교육정책 담당자로 자칭 타칭 시장주의자나 보수적 관료가 거론되고 중책이 맡겨진다. 대통령직 인수위에 교육시장주의자로 알려진 교수를 임명해 교육단체들의 원성을 들은 일이나, 보수적 색채가 짙고 교육개혁에 대한 능력은 전혀 없는 오명 씨를 교육부장관으로 임명하려다 교육주체들의 적극적인 반발로 유보된 일은 무심코 지나칠 일 아니다.

교육개방의 파괴적 사례가 속속 알려지고 있다. 멕시코나 캐나다에서 개방 이후 두세 배 이상 대학 등록금이 오른 사례. 말레이시아나 베트남에서 해

외대학분교가 들어오고 국공립대가 민영화되면서 '실용기술중심 교육'으로 재편되고 정작 질 높은 교육은 호주분교에서 받아야 하는 폐해. 홍콩처럼 대학이 고의 파산하는 경우. 1년 등록금이 1천만원이 넘어 부유한 자제들만 갈 수 있는 외국인학교. 교육개방의 모든 피해는 교수, 대학직원, 대학생을 비롯한 노동자 서민에게 고스란히 떠넘겨진다.

이런 폐해를 잘 알고 있는 유럽연합 15개국은 정부가 직접 나서서 교육, 보건, 문화, 공기업 등 공공영역은 상품교역의 대상이 아니며, 양허안 제출을 하지 않겠다고 개방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리고 'GATS 개방이 대세'가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학문·지식 교류를 모색하지는 국제적인 흐름이 대세가 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귀머거리마냥 개방에 앞장서고 있다면, 이제 교육주체인 대학생과 교수, 교사 등 교육주체들이 적극적인 문제제기와 대중행동에 나서야 하는 것 아닌가. '참여정부'의 참 뜻은 여기서 시작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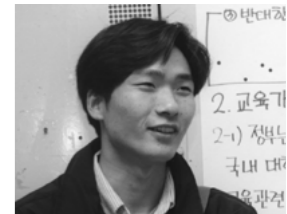
송권봉
진보교육연구소 사무처장

2030혁명 이젠 '감시'다!

교육개방

- 노 정부의 교육개방 정책에 대한 생각은.

= '불가피하다, 어쩔 수 없다'는 체념하는 식의 입장은 옳지 않다고 본다. 이미 유럽에서는 자국의 교육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나서서 교육개방을 연기했다. 교육의 '공공성'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신재성 (사회4)

- '교육개방 저지'가 시급한 이유는.
= 엄연한 '공공재'인 교육이 상품화한다는 데 큰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 대학교육은 이미 학부제, 모집단위 광역화 등으로 인해 '시장화'된 것이 사실이다. 여기에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식의 무분별한 교육개방까지 이루어진다면 교육의 공공성은 더욱 크게 파괴될 것이다.

한총련 합법화

- 한총련 합법화 '감시' 방법은?

= 노 정부가 한총련 합법화에 의지가 있다면 계속 압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수배자와 '소통'했으면 한다. 누구든 직접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나와 다르지 않은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되고, 그들에게 씌워진 이적 규정의 골레가 부당하다는 것을 느낄 것이다.



김은주 (국교4)

- 합법화 운동을 위한 활동계획이 있는지.
= 일단 수배해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에 이목이 집중된 만큼 계속 지켜볼 생각이다. 학내 정치수배자 모임이 결성된다면 기회가 닿는 대로 후원회를 만들어보고 싶다.

2 한총련 ... 풀어줄까? 눈감을까?

참여정부는 한총련을 자유롭게 할 것인가.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이하 한총련)이 이적단체로 규정된 지 올해로 7년째다. 그동안 한총련 대의원으로 구성된 학생대표자들은 모두 800여명, 지금도 300여 명의 한총련 대의원들이 수배의 꼬리를 떼지 못하고 있다. 연방제 강령을 삭제하는 등 지난 2년 동안 기술여은 합법화 노력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올해 참여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한총련의 이적규정 철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국가보안법 개혁,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에 대해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왔기 때문이다.

올해 초 대통령직 인수위 측은 한총련 합법화를 위한 범사회인 대책위(이하 대책위)에게 한총련 합법화 관련 면담을 제안하는 등 적극적인 제스처를 취하면서 한총련 수배자들의 기대는 더욱 높아졌다.

문제는 이적규정 철회를 '언제' '어떻게' 하느냐

다. 지난 97년 김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수배자 해제, 양심수 석방 문제에 관심을 보였으나 반발에 부딪혀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었던 것은 대통령의 의지만으로는 이적규정 철회가 쉽지 않다는 것을 반증한다.

3~4월 수배해제가 마지막 기회

이에 한 정치수배자는 "오는 3-4월 세워질 11기 한총련이 다시 이적단체로 규정되기 전에 양심수를 사면하고 정치수배 해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노 정권이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길"이라고 말했다.

11기 한총련이 이적단체로 규정되기 전에 수배를 해제하고 한총련에 대한 검찰의 기소를 막아야 할 한 해 악순환을 피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정부 출범 초기일수록 개혁 열망과 의지가 가장 높다는 것을 감안하면 올해 3월은 정치수배자들에게 중요한 고비인 셈이다.

한편 정치수배자들이 직접 수배해제 운동을 벌

이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새 정부 출범 즈음 공개 건강검진, 인터넷 라디오 방송 등으로 한총련 합법화를 이슈화시킨 것도 다름 아닌 장기정치수배자들이기 때문이다.

직접 나선 정치수배자들

특히 참여정부 출범 날짜에 맞추어 정식방송을 시작한 인터넷 방송 '정치수배자들의 생생한 목소리, 새봄'은 사람들의 많은 관심을 모았다. 어느새 자주 찾는 중고등학생까지 생겼을 정도다.

모임을 주도하고 있는 정치수배자 운영업(한총련 7기 권한대행·목포대) 씨는 "다양한 활동을 시작한 결과 수배해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는 것을 느낀다"며 "수배된 상태에서 어떤 방법으로든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소통하는 게 결국 수배해제 운동"이라고 말했다. 이들과 공감하는 사람이 생기면 생활수목 합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그 자체가 정부에 큰 압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참여정부의 수배 해제는 한총련이 '스스로' 합법화 여론을 만드는 길을 터놓는 일이될 것이다.

송윤경 기자
itsj@dongguk.edu

2003학년도 1학기 특별시험안내

1. 시험과목

Table with 5 columns: 학수번호, 이수구분, 교과목명, 학점, 시험시간. Rows include RFG006 (교필, 컴퓨터활용과실습1), RFG009 (교필, 실용영어1), RFG007 (교필, 영어회화1).

* 시험일시 : 2003. 3. 8(토)

- 2. 응시자격 : 2003학년도 1학기 1학년 재학생
3. 전형료 : 과목당 50,000원
4. 최대신청학점 : 3과목(3학점) 까지
5. 원서접수기간 : 2003. 3. 3(월) ~ 3. 5(수)
6. 원서접수처 : 교무처 교양교육운영실 (본관 2층, ☎ 2260-3886)

7. 전형방법

- 가. 컴퓨터활용과실습1 : 제시된 문제의 답안을 디스켓에 저장한 후 이의 내용 평가(윈도우즈 2000, 워드, 아래 한글 2002, 인터넷(검색, 익스플로러, 홈페이지 만들기, 자바 스크립트) 등의 실습테스트)
나. 실용영어1 : TOEIC 형태의 시험 실시 후 평가 (Listening Comprehension, Reading Comprehension)
다. 영어회화1 : 외국인 교수와의 Interview 후 5가지 기준으로 평가 (발음, accent, intonation, 문장구조, 어휘의 풍부성)

- 8. 합격자 발표 : 2003. 3. 14(금) 학교 홈페이지
9. 성적등급 표시 : 합격한 과목에 한하여 A+, A를 부여함
10. 유의사항
가. 특별시험에 합격하여 취득한 성적은 포기할 수 없으며, 정규학기의 수강 신청을 불허함.
나. 고사실은 2003. 3. 6(목)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교 무 처

수강신청 확인 · 정정

2003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 확인 및 정정기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1. 기 간 : 2003. 3. 5(수) 09:00 ~ 3. 7(금) 22:00까지, 3일간
* 야간 전공 및 교양과목은 3월 5일 오후 6시이후에 수강신청 정정 시작
2. 장 소 : 교내컴퓨터실(시간표 책자의 실습실 안내 참조) 및 교외(인터넷)
3. 대 상 : 2003학년도 1학기 재학생
4. 기 수강신청 과목확인
본인의 이메일 및 학교 홈페이지의 수강신청조회에서 확인
5. 유의사항
가.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PC로 정정할 것 (세부절차는 시간표 책자 참고)
나. 교과목, 학수번호, 강좌번호 및 담당교수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람.
다. 시간표의 변경사항(분반, 폐강 등)은 조정강의시간표를 참조하고, 최종 변경사항은 본교 홈페이지의 강의시간표 조회 또는 본인 수강신청 확인란을 참조하기 바람.
라. 분반으로 인하여 수강강좌가 변경된 학생은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변경하였음.
마. 수강신청 정정 후 별도의 확인원을 교학과에 제출하지 않아도 됨.

교 무 처

DUBS 45기 수습국원 모집

Recruitment notice for DUBS 45th trainees. Includes details on application period (March 19th), location (4th floor), and contact information (2260-8503).

참된 언론 함께 하는 방송 DUBS

친일문학 되짚어 보기

지난해부터 활발해지기 시작한 친일문학에 대한 논의와 연구는 관련 학술대회나 친일작품전시회 등이 개최되며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본고에 '미당 유품전'이 개최되는 등 다시 논의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친일문학을 다시 짚어보고, 관련 연구가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본다. 편집자

친일문학, 음지의 역사에서 논쟁의 쟁점까지

친일문학은 일제의 침략과 지배, 수탈과 전쟁 동원을 정당화하고 여기에 조선인을 자발적으로 끌어내려고 한 친일문인들의 반동적 실천문학이다. 따라서 친일문학의 기자에는 일본제국주의의 통치원리인 친황제이데올로기를 비롯해 일제가 각 시기마다 내걸은 주요 이념과 시책에 대한 자발적 동기가 깔려있다.

때문에 일제 군국과시즘문학의 식민지 변종이었던 친일문학도 해방 후 어떠한 형태로든 척결되어야 했다. 친일문학에 대한 비판은 좁게는 문학사의 한 영역에 속하지만, 넓게는 해방 후 변신에 변신을 거듭하면서 언제나 기록권의 양자만을 추구해 온 '해바라기성' 집단의 본류에 대한 총체적 비판이자, 그들이 구축한 사회구조와 허구이데올로기를 비판, 극복하는 역사적 현재적 작업이다.

해방 직후 문학계의 친일 세력 청산은 선연적 차원에서 그쳤다. 이후 1948년 반민특위가 만들어져 친일파에 대한 법적 처벌이 이루어지면서 친일문인들도 도마에 올랐다. 그러나 반민특위는 '친일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이라는 관점에서 이루어졌고, 친일 세력의 반격에 의해 반민특위가 중도 와해됨으로써 친일청산 자체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6.25와 뒤이은 극단적 냉전 상황 그리고 박정희의 장기집권은 친일문제를 물밑으로 가리앉혔다. 그 가운데 1965년 한일협정 비준을 전후해 친일문학에 대한 본격 연구서가 나왔다. 임종국의 '친일문학론'(1966년)이 바로 그것이다. 임종국은 친일문학 작품과 관련 문인들의 친일 행적을 방대한 자료로 엮어 그 실상을 소개하면서, 친일문학에 대한 성격을 규명하고자 했다. 그러나 '친일문학론'이 세간에 일으킨 반향에 비해 이를 이어가는 학계의 후속 연구는 왕성하지 못했다. 친일문인으로 지목된 이들이 생존하고 이들이 제도 학문의 체계모니를 장악한 상황이 상당히 작용했을 것이다.

1970년대 들어 친일문학에 대한 학술적 연구가 시도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진 문인들의 친일 행위에 대한 대중적 비판이 일어나면서 서정주, 김용제 등이 자신의 친일 과거에 대해 밝히기 시작했다. 그러나 서정주의 '중전순일파'론이나 김용제의 '친일위장설'은 변명 또는 왜곡이나 궤변의 성격이 짙었다. 이들의 웅색한 변론은 친일문학이 일제 당대의

부끄러운 일시적 행위로서 처리될 사안이 아니며, 그 (작품)행위 속에 내재된 그들의 사고와 처세가 해방 후에도 일관하고 있다는 혐의만 짚게 했다. 즉 친일문학이 하나의 이데올로기로서 파악되어야 하며 그 현재성이 더욱 주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1980년대 이후 친일문학론은 '일탈된 문학'으로 여겨지던 시각을 벗어나 그 속에 흐르는 논리를 분석하는 데로 나아갔다. 이 연구는 두 갈래로 나뉘어졌다. 먼저 친일문학의 논리에서 일제의 억압과 그에 대한 복종이라는 요소를 제거하면 하나의 문학이론으로서 음미할만하다는 입장이 있다. 이와 반대로 친일문학을 '친황제, 군국주의, 민족허무주의 내지 식민사관 또는 기교주의, 반공주의, 일본중심적 동양주의에 바탕한 반서구 반기독교주의' 등이 깔려있는 완결적인 (반동) 이데올로기로 파악하는 적극적 비판론도 나왔다.

문학인이 갖는 특유의 지위 때문에 특정 문인에 대한 친일 여부가 오히려 대중적 논쟁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특히 최남선, 서정주, 모윤숙, 유치진 등 문학인들의 기념사업을 둘러싸고 최근 격렬한 찬반 논쟁이 벌어졌다. 옹호론자들의 논지는 △재능론 △공과론 △공통피해자론 △상황윤리론 △전국민 친일파론 등으로 거칠게 압축할 수 있다. 반대측의 경우 이들 문인들의 친일 행적은 △일회성이 아닌 지속반복성 △작품 내용에 있어 강요라고 보기 어려운 일제에 대한 자발적 충성 △친일자세를 합리화하는 내적 논리의 일관성 등을 갖기 때문에 친일혐의를 벗어날 수 없다고 강력하게 논박하고 있다. 그리고 문학에 대한 공로가 민족사에 대한 해악보다 우선할 수 있는지는 논쟁도 함께 떠올랐다. 특히 2002년 8월 민족문화학자회의, 민족문제연구소 등이 기자회견 형식을 빌어 친일문인에 대한 규정과 함께 그 명단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면서 논쟁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문학은 그 속성상 대중적 과파력이 크다. 그리고 문학(인)은 대중의 사랑 속에서 성장한다. 일제 시기 문인의 친일행위는 문학행위 이전에 민족에 대한 반법행위였다. 이에 대한 진솔한 자기반성이 선행될 때 보다 생산적인 친일문학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

박한용 민족문제연구소 상임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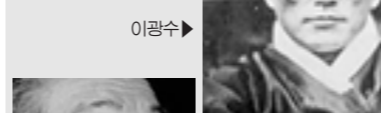
▲지난해 8월 열린 '친일문인' 발표 기자회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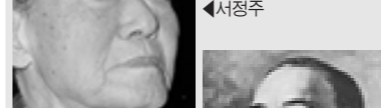
▲임종국과 그의 저서 '친일문학론'.



◀친일명단에 포함된 시인 노천명.



이광수▶



◀서정주



최남선▶



▲지난해 2월부터 현재까지 열리고 있는 '친일작품 전시회'.



▲지난 11월 열린 '친일문학연구회 성과와 과제' 토론회

체계적 자료수집 · 전문가 육성 이뤄져야

친일문학 연구의 성과와 과제

친일문학에 대해 분석하고 파악함으로써 당시의 사상과 문학적 배경, 친일문인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이를 통해 앞으로 문학연구의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 친일문학연구의 의미는 여기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지난해 8월 민족문화학자회의와 민족문제연구소 등은 친일문학인 42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이날 공개된 친일문인은 김동환 노천명 서정주 주요한 최남선(이상 시), 김동인 박영호 유치진 이광수 채만식(이상 소설 · 수필 · 희곡), 김기진 박영희 백철 정인섭 최재서(이상 평론) 등이다. 선정기준은 식민주의와 파시즘의 옹호 여부로 삼았으며, 이중 이광수는 103편의 시, 소설, 논설 등을 기고해 가장 많은 편수를 나타냈다.

명단이 발표된 후, 여러 행사가 잇따라 개최되는 등 친일문학 연구는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 2월부터 서울에서 처음 열린 후 현재까지 전국 순회로 전시되고 있는 '부끄러운 자화

상, 친일 예술인과 그들의 작품전'도 김동환, 최남선, 서정주 등의 친일문학작품 다수를 전시해 친일문학인을 재조명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11월 개최된 학술발표회에서는 그동안의 친일문학연구 성과와 앞으로 과제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이 진행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충북대 김승환(국어교육) 교수는 "친일문학연구는 역사의 실체를 분명히 하지는 표현적인 목표와 탐사민 의식으로 미래를 설계하지는 의미를 담고 있다"며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친일문학 자료가 일제 당시의 것들 뿐인 데다 연구자가 개별적으로 자료를 수집, 소장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체계적인 자료수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민족문제연구소와 친일문제연구소 등 연구 단체가 있지만 전문인력이 부족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점은 풀어야 할 과제다.

최성민 기자

qwertewq@dongguk.edu

학술단신

'정부의 신자유주의 전략과 여성' 토론회

'노무현 정부의 신자유주의 전략과 여성'이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오늘(3일) 오후 6시 민주노총 9층 회의실에서 열린다.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와 사회진보연대 등이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김대중 정부 평가와 노무현 여성 정책 전망' '운동진영의 대응 및 향후 과제'에 대한 발제와 토론순서로 진행된다.

정육식 평화네트워크대표 특별강연회

'미국의 이라크전쟁, 어떻게 될 것인가. 북핵위기의 분절과 해법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한 특별강연회가 오늘(3일) 오후 7시 30분 참여연대 2층 강당에서 개최된다.

정육식 평화네트워크대표가 강연자로 나오며 참가비는 무료. 문의) 02-723-4251

교수통정

김선근(인도철학)=지난달 22일

국내 최초로 인도 바라나스 힌두대에서 불교학 관련, 박사후과정 박사학위 취득.

김삼경(법학)=지난달 2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한국공법학회 주최 제106회 학술발표회에서 '금융감독청에 관한 법적 고찰'에 대해 발표.

김갑순(회계학)=지난 1월 11일

'기업특성과 간접감명을 이용한 법인세평준화 상황' 논문으로 한국세무학회 우수논문상 수상.

동국대 출판부 도서안내 Http://home.dgu.ac.kr/~book/index.html Tel. 02)2260-3483~4 Fax. 02)2268-7851

생각의 꽃

동대신문사 · 문예창작학과 엮음 / 509면 / 15,000원

이 책은 우리가 학창 시절에 만나고 경험했던 사물과 생각의 조각들이 담겨있다. 그리고 문학을 꿈꾸는 청년들에게는 과거를 읽는 즐거움을 제공한다.

성역사와 문화

정태섭 외 공저 / 420면 / 10,500원

한국과 동 · 서양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성 인식과 자료들을 모아 체계적인 논점으로 엮음.

불교와 종교철학

김용표 저 / 385면 / 15,000원

종교의 철학적 문제에 대한 불교적 해명을 통해 불교를 보편적 조망속에서 이해할 수 있는 패러다임의 모색을 시도한 연구.

한국의 전통조경

홍광표 · 이상운 공저 / 394면 / 14,000원

대상에서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조경작품들을 선정하여 문헌고찰, 100여개의 도면과 500여장의 사진을 통해 작품에 대한 분석과 해석을 수록.

한국민간신앙과 문학연구

오송세 저 / 415면 / 19,000원

민간신앙을 자료로 하여 한국인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문학과 연관시켜 성찰하는 데 주력.

한국현대문학사

김선학 저 / 377면 / 14,000원

문학사의 산맥을 답사한 사람들의 업적을 쫓으면서 그것에 바탕을 두고 기술. 한국 현대문학의 산맥을 이루는 크고 작은 산들을 소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춤.

여성학의 이론과 실제

교양교재편찬위원회 편 / 430면 / 10,000원

여성문제를 문화혁신 차원에서 폭넓게 다루었다. 전3부12장으로 제1부 여성학의 성격, 제2부 남녀평등의 이론적 기초, 제3부 현대사회와 남녀평등으로 구성.

한방은 배설의학이다

최달영 외 역 / 255면 / 9,000원

『상한론(傷寒論)』을 비롯한 유명 한방처방의 치료법을 과학적 실험에 기초하여 그 효용이 입증된 것을 중심으로 한약과 민간약, 건강식품의 효용과 요법을 증상마다 알기 쉽게 해설.

양주동 전집

양주동 저 / 전12책 / 320,000원

1. 고가연구 2. 여요전주 3. 국어학연구논고 4. 문주, 인생따라잡기 5. 지성의광장 6. 조선의맥박 7. 국문학정화, 상의3 8. 민족문화독본 상 · 하 9. 세계문화독본 상 · 하 10. 논문 11. 평론 외 2편 12. 수필 외 4편으로 구성.

“구성원 의견 적극 반영해

합리적으로 운영할 것”



지난 1월 24일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이 동국학원 제20대 이사장에 취임했다. 이에 서정대 신임 이사장과와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 재단 전입금 확충을 위한 방안 등 본교 현안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들어보았다.

동국학원 제20대 이사장 서정대

△생년월일 : 1934년 3월 17일

△학 력 : 전북대 대학원 영문학 석사과정 수료

△경 력 : 조계종 중앙종회 의장 불교방송 이사 동국학원 이사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 조계종 총무원장

- 동국학원 이사장에 취임한 소감은.
= 그동안 동국학원은 많은 발전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유치원에서부터 초·중·고·대학, 그리고 LA의 로얄대학교 전산원까지 모두 12개의 교육기관을 가지고 있으며 대학 부속 양·한방병원으로 일산병원을 포함한 6개의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이것은 이사장의 입장에서 뿌듯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책임감에 대한 부담으로 양어깨가 무거울 정도의 중압감이 들기도 하다. 그러나 양적 팽창만큼 질적인 수준이 뛰어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학교의 질적인 향상이 앞으로의 과제라는 생각이 든다.

의형적 발전 지양할 때

- 현재 동국대학이 직면한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 발전, 발전이라고 하면서 대학에서 벌

려 놓은 게 너무 많다고 생각한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는 말이 있다. 일반 기업을 살펴봐도 무턱대고 덩치만 키우다 빛에 놀려 부도가 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제 동국 구성원들은 외형적인 발전에만 가치를 두는 사고를 지양하고 내실있는 발전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대학에 입학할 학생들이 점점 감소한다는 것도 직면한 문제중 하나이다. 다음으로 교육의 질도 그렇고, 등록금 의존도가 높은 우리 실정에서 경영상의 문제도 그렇고...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우리들의 마음이다. 의식을 전환하고 군살을 빼야하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한다.

- 재임기간 중 학교발전을 위해 가장 하고 싶은 일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은.

= 취임한지 한 달 여밖에 되지 않아 아직 구체적 생각을 할 겨를이 없었다. 더욱이 조계종 총무원장에서 갑작스럽게 법인 이사장으로 취임하게 돼 진술한 구상을 가다듬을 시간과 마음의 여유가 주어지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이 본인이 총무원장으로 3년 가까이 재임하는 동안 종단이 안정을 되찾고, 재정적 기반을 구축했다고 말한다. 종단 경험도 있고 나름대로 동국학원을 보아 온 관점이 있다.

그리고 일은 이사장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승가의 생명은 화합이다. 앞으로 다른 임원들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이 시점에서 더이상 후퇴하지 않을 그런 설계를 마련하겠다.

그리고 일은 이사장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승가의 생명은 화합이다. 앞으로 다른 임원들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이 시점에서 더이상 후퇴하지 않을 그런 설계를 마련하겠다.

병원 개원, 학교가 주체적으로 해야

- 불교병원의 개원준비현황과 개원준비위원회의 역할은.

= 본교가 종립 학교인 만큼 크게 보면 불교병원은 1600년 종단사에서 종단이 이룩한 불교적 이념을 반영한 병원이라 말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추상적 수사일 뿐이다. 불교병원이 동국대학교 의과·한의과 부속 병원인 이상 의과·한의과 대학 수련 병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든 운영상의 책임은 법인이 아

니라 학교가 가지고 있다. 준비위원회를 법인에 둔 것도 학교를 돕는다는 차원인 것이다. 준비위에 대해 그간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불교병원은 총장 책임하에서 모든 일이 진행되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다.

학내 구성원들도 불교병원을 '어떻게 되나 보자'는 식의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지켜 보면 안된다. 본인도 불교병원 때문에 많이 걱정하고 있다. 병원개원이 잘 되도록 우리가 힘을 모아야 한다. 물론 준비위원회는 임무가 빨리 끝나면 끝날수록 좋다.

또한 새 총장이 취임한 만큼 개원을 위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빠른 시일 안에 불교병원이 문을 열고 환자를 맞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일부에서는 재단의 재정적 지원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다. 전입금 확충을 위한 방안과 수익사업을 늘리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 사업 경험도 없는 법인에서 수익사업을 운영하려 하면 되려 큰 일이 날 수도 있다. 처음 취임한 이사장이거나 듣기 좋은 말로 그럴듯한 계획을 여러 가지 말할 수는 있으나,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다만 조심스럽게 한 두가지 구상은 하고 있지만 여기서 지금 구체적인 것을 밝힐 단계는 아니라는 것을 밝혀 두고 싶다.

전입금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것은 알지만, 대학이나 산하 학교가 꼭 재단 돈만 가지고 시설을 해야한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고 우리 실정에서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설립자가 영구히 경영상의 뒷돈을 대야 한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기부문화가 발달한 나라에선 사회가 사학의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해 가는 풍토를 만들었다.

전입금이 적다고 비난하기보다 동국대학이 이만큼 큰 것은 설립자인 종단이 건재하고, 수많은 여러분 선배들의 기여와 애교심의 덕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종립학교관리위원회의 역할은.

= 법인의 스님 이사들은 종단의 추천을 받게 되어 있고, 종단 추천은 관리위원회의 선출에서부터 출발한다. 관리위원회의 임무는 이와 같은 이사후보 복수 추천에 주목적

이 있다. 또한 법인에 대한 모든 책임은 법인이사들이 지도록 교육법이 명시하고 있다. 만일 부당한 간섭이 있었다면 그것은 마땅히 배격돼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 개교 100주년을 맞이하여 구상중인 기념 사업은.

= 타대학의 경우 학교와 재단이 합심하여 기념관을 많이 짓는다. 그러나 3년 여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큰 것을 계획하기는 힘들다. 기념관 같은 것도 좋지만 서울 캠퍼스에는 부지가 없어 짓지 못하는 현실이다.

지금 상황으로 송곳하나 꽃을 못이 없다. 따라서 부지를 늘려 캠퍼스 관을 멋지게 다시 짜 보자는 것을 구상하고 있지만 지금 밝히기는 힘들다. 또한 여러 행사 등 좋은 계획을 마련할 것이다.

각급 학교 합리적으로 지원할 것

- 앞으로의 계획과 구성원에게 하고 싶은 말은.

책임시간을 줄이고 근무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교육의 질을 높이는 일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교육할 대상의 인적자원은 이제 한계에 와 있고, 그래서 등록금 의존도가 높은 우리 현실에 어려움이 뻔히 보이는데 예산만 늘려 잡는 이기적 발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IMF 때에도 우리는 구조조정이 없었다. 이제 우리는 본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얼마나 나를 희생할 것인가, 이런 자세부터 가다듬는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교수는 우선 잘 가르쳐야 한다. 연구 업적도 중요하지만 교육을 잘 해야 대학이 된다고 믿는다.

새로 부임한 홍기삼 총장이 좋은 구상을 가지고 있으리라 믿기 때문에 그걸 듣고 법인운영 방향에 많은 참고를 삼을까 한다. 또한 모든 부문에서 합리성을 추구하고 각급 학교를 지원한다는 것이 재단의 기본 입장이다.

우리 불가에 한 마음이 깨끗하면 온 나라가 깨끗하다는 말이 있다. 마찬가지로 한 마음이 흥(興)하면 온 나라가 흥한다는 생각을 갖고 각자가 자기 마음을 '동국에'로 충만시켰으면 좋겠다. 조슬기 기자

chof55@dongguk.edu

2003학년도 1학기 신규교수 프로필



고영섭 (불교대학 불교학과 전임강사)

- ◎ 본교 불교학 졸
- ◎ 본교 불교학 석사학위 취득
- ◎ 본교 불교학 박사학위 취득
- ◎ 한국불교사 전공



지창규 (불교대학 불교학과 전임강사)

- ◎ 본교 불교학 졸
- ◎ 본교 불교학 석사학위 취득
- ◎ 본교 불교학 박사학위 취득
- ◎ 전 천태불교문화연구원 이사
- ◎ 천태학 전공



신성현 (불교대학 불교학과 전임강사)

- ◎ 본교 불교학 졸
- ◎ 본교 불교학 석사학위 취득
- ◎ 본교 불교학 박사학위 취득
- ◎ 전 본교 불교문화사상(교육)연구원
- ◎ 계율학 전공



김환기 (문과대 일어일본학과 전임강사)

- ◎ 본교 일어일본 졸
- ◎ (일)대정대 문학연구 석사학위 취득
- ◎ (일)대정대 문학연구 박사학위 취득
- ◎ 전 본교 일본학연구소 전임연구원
- ◎ 일본문학 전공



김경재 (경영대학 정보관리학과 전임강사)

- ◎ 중앙대 경영학 졸
- ◎ KAIST 경영공학 석사학위 취득
- ◎ KAIST 경영공학 박사학위 취득
- ◎ 전 경희사이버대학 경영정보학 전임강사
- ◎ MS(Technical) 전공



최한호 (공과대학 전기공학과 전임강사)

- ◎ 서울대 제어계측공학 졸
- ◎ 한국과학기술원 전기및전자공학 석사학위 취득
- ◎ 한국과학기술원 전기및전자공학 박사학위 취득
- ◎ 전 인동대 전자공학교육과 조교수
- ◎ 계측 및 제어 전공



김상범 (공과대학 토목환경공학과 전임강사)

- ◎ 연세대 토목공학 졸
- ◎ (미)Texas(Austin)대 토목공학 석사학위 취득
- ◎ (미)Texas(Austin)대 토목공학 박사학위 취득
- ◎ 전 Construction Industry Institute Research Assistant
- ◎ 건설관리 및 정보화 전공



정연돈 (정보산업대학 컴퓨터미디어(다)공학과 전임강사)

- ◎ 고려대 전산과학 졸
- ◎ KAIST 전산학 석사학위 취득
- ◎ KAIST 전자전산학 박사학위 취득
- ◎ 전 KAIST 전산학 연구교수
- ◎ 컴퓨터공학 전공



이용한 (정보산업대학 산업시스템 공학과 전임강사)

- ◎ 서울대 산업공학 졸
- ◎ KAIST 산업공학 석사학위 취득
- ◎ (미)Pennsylvania주립대 산업공학 박사학위 취득
- ◎ 전 (미)Pennsylvania주립대 Post-Doc
- ◎ 산업공학/정보시스템 전공



윤재웅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전임강사)

- ◎ 본교 국어국문 졸
- ◎ 본교 국어국문 석사학위 취득
- ◎ 본교 국어국문 박사학위 취득
- ◎ 현대문학(독서·창작교육론) 전공



진미경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전임강사)

- ◎ 본교 가정교육 졸
- ◎ 본교 가정학 석사학위 취득
- ◎ 본교 가정학 박사학위 취득
- ◎ 가족·아동 전공



정우범 (대학원 미술사학과 부교수)

- ◎ 본교 미술학 졸
- ◎ 중앙대 미술사학 석사학위 취득
- ◎ (일)구주대 철학 박사학위 취득
- ◎ 전 경희대 미술사 겸임교수
- ◎ 동양미술사(불교미술사) 전공



최정자 (관광대학 관광경영학과 전임강사)

- ◎ 계명대 관광경영 졸
- ◎ 대구기독교대 영어 석사학위 취득
- ◎ 캔자스 주립대 관광경영 석사학위 취득
- ◎ 전 경주대학교 관광학부 전임강사
- ◎ 관광경영 전공



정철 (의과대학 의학과(기초) 전임강사)

- ◎ 본교 의학 졸
- ◎ 본교 예방의학 석사학위 취득
- ◎ 본교 예방의학 박사학위 취득
- ◎ 전 본교 경주병원 예방의학과 임상전문의
- ◎ 예방의학(보건관리학) 전공

“교육·연구 활성화로 대학 본질 회복에 주력”



홍기삼(국어국문학)교수가 제15대 총장에 지난 1일 취임했다. 이에 신입총장을 만나 학교 현안에 대한 해결 방안과 함께 본교 발전 계획에 대해 들어 보았다.

- 총장에 취임한 소감과 앞으로의 포부는.

= 어제가 정말 무겁다. 아직까지 학교의 행정과 운영 전반에 대해서 자세히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학교 재정이 열악한 상황이라는 것, 교육적 인프라가 빈약하다는 것은 분명히 느끼고 있다. 또한 학내 구성원들이 교육과 연구에 대한 학교의 의지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대학의 본질 회복, 즉 교육과 연구의 활성화를 우선적인 목표로 삼고 싶다. 강조하건대, 시장의 논리로 대학을 꼭해해서는 안된다. 교육과 연구의 활성화를 통해 도덕적 가치와 아울러 실천적 가치를 지닌 학문을 창출해 내는 것. 그것이 유일한 관심사다.

‘불교생태학’ 총본산 표방

- 공약사항이었던 본교 특성화 전략 및 발전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면.

= 특성화는 외형적 측면과 내형적 측면, 즉 학문적 특성화라는 두 가지 측면으로 바라볼 수 있다. 그런데 현재 대학가에는 외형적 발전만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외형적 발전은 보조적 수단일 뿐, 진정한 발전은 학문적 성과로부터 이뤄져야 한다.

때문에 본교를 진정한 학문의 장으로 만들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성원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고 본교를 대표할 수 있는 학문의 지향점이 필요할 것이다. 나는 그런 학문을 바로 ‘생태학’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생태학의 총본산으로 본교를 특성화시킬 계획이다.

아직까지 하나의 학문적 이상을 향해 총본산을 표방한 대학이 국내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때문에 본교가 불교생태학의 총본산으로서 실력있는 전문가들을 많이 배출한다면, 학문적 해외 진출은 물론 진정한 동국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생태학 표방에 대해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 자연과 환경을 중시하는 생태학은 인문, 사회, 과학 등 모든 분야의 학문을 망라한다. 인간의 생존과 직결되는 환경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생태학은 필수불가결한 학문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토목공학, 행정학 혹은 문학 등 어떤 학문도 생태학과는 접목과 연계가 가능하다고 생각

한다.

또한 생태학은 생명 존중 사상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본교의 건학이념인 불교와 철학적 기반을 공유하고 있다. 생태학에 불교이념을 강조해 불교적 생태학, 이른바 ‘불교생태학(Budeology)’으로 본교를 특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 공약사항에서 거론된 ‘학부제 검토’에 대한 계획과 방향은.

= 지금의 학부제는 교육적 성과가 부족한 제도라고 생각한다. 36학점으로 학위를 인정하는 것, 전공 필수과목이 없어진 것은 기본적인 교육과 연구를 존중하는 발상이 아니다. 그렇기에 실사 교육부의 지원이 줄어들다고 해도 학부제가 아닌 학과 중심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다.

하지만 우선적으로 학부제 검토와 방향은 학내 구성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내가 확실히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구성원들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때문에 학과별로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도록 할 것이다.

- 현재 2003학년도 1학기 등록금이 10% 인상, 일방적으로 고지해 학생들의 반발이 크다. 이에 대한 견해와 전임총장과 총학생회의 학자 합의안 중 하나인 ‘등록금철폐위원회(이하 등책협)’에 대한 생각은.

= 전임 총장과 집행부가 결정한 일기기는 하지만 신 집행부가 등록금 인상요인을 신속히 파악해야 할 것이다.

학생들이 주장하는 등책협에 대해서는 일단 부정적인 생각이다. 왜냐하면 협상이라는 단어가 교수와 학생 사이의 대화에는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다. 협상은 어디까지나 이익집단들끼리 자신의 이익을 위해 흥정할 때 사용하는 말이다. 부도덕한 기성세대를 불신했기 때문에 이런 말이 생겨난 것을 불행하게 여겨야 할 일, 그 뿐이다.

그러므로 학생들과 대화는 하되, 협상에는 찬성하지 않겠다. 하지만 어떤 경우라도 학생들로부터 오히려 불신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 등록금 역시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사용할 것이다.

전문가 컨설팅 ... 불교병원 개원추진

- 불교병원 개원을 위한 방안은.

= 병원개원과 관련한 문제는 큰 사안인 만큼 성급하게 접근해서는 안될 것이다. 전문가에게 의뢰해 개원의 적정 시기 등에 대해 컨설팅을 받도록 하겠다. 또한 그동안 예산이 얼마나 투입됐고 앞으로 얼

마나 더 필요한지, 어떻게 병원을 운영할 지에 대해 종합적으로 파악할 계획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구성원들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한 교비회계와 병원회계는 어떤 일이 있어도 엄격히 분리하도록 하겠다.

- 일산 제3캠퍼스가 부지만 마련된 채 방치돼 있다. 이에 대한 계획은.

= 테스크 포스(task force) 팀을 운영해 전반적,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공간과 건립 등에 관한 계획과 연구를 할 생각이다. 이·공계를 이전한다는 것도 재검토돼 봐야 할 것 같다.

하지만 제3캠퍼스를 건립하려면 막대한 건축비가 들어가는 만큼, 가능하다면 건립과 이전을 신중히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 인프라 구축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 교육환경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 여러 가지 계획들을 나열하자면 △총장실 대폭 축소 등을 통한 공간 확보 △연구, 검토 후 개개식 도서관 마련 △실사 후 실험·실습비 확대, 각종 기자재 구입 △교사 축소, 토요강좌 개설 △폐기기준 완화 △필수 전공과목 개설 △졸업요건 강화, 철저한 학점·학사 관리 △교수업적평가 중 교육업적 평가 비중 강화 △교수초빙 확대 등을 생각하고 있다. 이외에도 앞으로 많은 개선 방안을 계획하고 추진해 나갈 것이다.

재·종단에 적극적 도움 요청

- 재·종단과의 관계 개선과 재단 전입금 확보를 위한 방안은.

= 교계에서 학교 지원을 늘릴 수 있도록 백방으로 노력하겠다. 현재는 재·종단이 본교에 대한 애정이 현저히 낮은 것 같지만 종단과 교계를 방문해 학교의 열악한 현실을 적극 알리고 도움을 요청할 것이다. 또한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재·종단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힘쓰겠다.

- 경주캠퍼스의 자율권 확보와 특성화 계획에 대한 의견.

= 자율성을 극대화해서 경주캠퍼스가 독자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밀어줄 생각이다. 이를 위해 경주권 자율성 확보를 위한 위원회를 공동으로 구성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다. 또한 재단과 ‘재단 2총장제’에 대해 논의해 보겠다. 물론 경주캠퍼스 총장의 실질적 내용과 역할은 부총장이 되겠지만, 예산편성권이나 인사제정권 등은 이양할 수 있

을 것이다.

- 재임기간에 본교는 개교 100주년을 맞이하게 된다. 100주년 기념사업에 대한 계획이 있는가.

= 2006년 5월 8일로 우리대학의 모든 시계를 맞추려고 한다. 100주년 기념 본부를 다시 활성화시켜 △아젠다 선정 △기념 출판 △학술회의 △기념건축물 건립 △연구소 특성화 △기념행사 등을 기획, 시행해 2006년에는 모든 기념사업의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도록 하겠다.

- 마지막으로 동국 구성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 본교를 교육과 연구의 장, 진정한 학문의 장으로 만들려면 제일 먼저 변화해야 할 주체는 교수와 학생이다. 이들은 교육과 학업을 소홀히 여기거나 소극적으로 대해서는 안될 것이다.

또한 재단, 종단, 동문, 불교계 역시 본교가 조계종 종립학교 답게 발전할 수 있도록 성원해주지 않으면 동국대의 존립근거는 미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되새겼으면 한다.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 동국대학은 2006년에 새로 태어날 수 있을 것이다. 모두 함께 어둠 속에서 별을 보듯이 꿈을 가지고 정진하자.

한보라 기자
hviolet@dongguk.edu

본교 제15대 홍기삼 총장

△생년월일 : 1940년 12월 20일

△학 력 : 본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일본 쓰쿠바 대학 문학박사

△경 력 : 기획조정실장
문과대학장
한국문학연구소장
한국문학평론가 협회 회장

2003학년도 1학기 신규교수 프로필



박영희 (한양대학교 한의학과 분당한방병원 전임강사)

- 경희대 한의학 줄
- 경희대 한방재활의학 석사학위 취득
- 본교 분당한방병원 전임의
- 전 한방재활의학과 전공



김성호 (의과대학 의학과 경주병원 전임강사)

- 울산대 의학 줄
- 서울아산병원 임상강사
- 전 내과 (류마티스내과) 전공



조영준 (의과대학 의학과 경주병원 전임강사)

- 경북대 의학 줄
- 경북대 의학 석사학위 취득
- 경북대병원 임상전문의
- 전 내과 (신장내과) 전공



정주호 (의과대학 의학과 경주병원 전임강사)

- 본교 의학 줄
- 가천의대 의학 석사학위 취득
- 가천의대 김병원 전임의
- 전 신경외과 (척추신경외과) 전공



권오성 (의과대학 의학과 경주병원 전임강사)

- 본교 의학 줄
- 곡성보건의료원 공중보건외
- 전 이비인후과 (비학) 전공



전재용 (의과대학 의학과 경주병원 전임강사)

- 서울대 의학 줄
- 서울대 의학 석사학위 취득
- 본교 경주병원 전임의
- 전 재활의학과 (일본재활의학) 전공



김수진 (의과대학 의학과 경주병원 전임강사)

- 본교 의학 줄
- 본교 의학 석사학위 취득
- 본교 경주병원 마취과 레지던트
- 전 마취통증의학과(마취통증의학) 전공



이동욱 (의과대학 의학과 경주병원 전임강사)

- 본교 의학 줄
- 본교 의학 석사학위 취득
- 본교 경주병원 임상전문의
- 전 가정의학과(가정의학) 전공



김홍균 (의과대학 의학과 경주병원 전임강사)

- 경북대 의학 줄
- 경북대 의학 석사학위 취득
- 해군포항병원 인과과장
- 전 인과(인과학) 전공



이형종 (의과대학 의학과 포항병원 부교수)

- 경북대 의학 줄
- 계명대 의학 석사학위 취득
- 계명대 의학 박사학위 취득
- 전 신부인과(일본신부인과) 전공
- 계명대 의대 조교수, 아세아병원장



김광수 (의과대학 의학과 포항병원 전임강사)

- 본교 의학 줄
- 본교 의학 석사학위 취득
- 양산시 공중보건외
- 전 인과 (인과학) 전공



방성동 (의과대학 의학과 포항병원 조교수)

- 경북대 의학 줄
- 대구효성기톨릭대병원 외래전임강사, 세브란스의원장
- 전 총무부와 (총무외과) 전공



이재욱 (의과대학 의학과 포항병원 전임강사)

- 본교 의학 줄
- 본교 의학 석사학위 취득
- 삼성서울병원 소화기내과 전임의
- 전 내과 (소화기내과) 전공



탁우려 (의과대학 의학과 포항병원 전임강사)

- 본교 의학 줄
- 단국대 의학 석사학위 취득
- 단국대병원 신장내과
- 전 내과(신장내과) 전공

소나기

대구 지하철 참사 무엇이 문제였나



△김대환 씨, 차라리 용감하게 한나라당 지구당에 돌격하지, 죄없는 시민은 왜 희생시켰나? △폐쇄된 지하철 내자재들 그런 것-유독가스가 나오는 것-을 쓰다니 △시키는 것만 하고 시키지 않는 것은 회피하는 한국사회 알파에서 오메가까지의 써어빠진 관념 때문. △할 말이 없다. △지난날 '달아써우기' △사령실+김대환+최모 기관사, 3인의 합작품. △마녀사냥이 가장 큰 문제다. 사령실, 기관사, 불지름 아저씨, 죽어간 모든 사람들→이들은 모두가 서민일 뿐이다.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를 언론이 나서서 본질을 흐린다. 없는 놈들만 원인제공자, 사망자, 미수한 조치자로 몰려 '마녀사냥'을 당한다. △지하철 화재시 대처방법을 TV에서 방송하다나...독일은 100년동안 겨우 2명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사고가 났을 뿐인데... △인원한 공무원들...모두 물러나야 한다! △막연한 낙관주의 △윤이 없었다. △기관사들의 도덕성. △죽은 사람만 억울하지 뭐. △불쌍해~물수건과 방목면은 이제 필수!! △문제의 핵심은 지하철공사의 안일한 행정이라기보다 사회소외계층을 증산·방치하는 사회구조·인식이라고 생각한다. 사고가 났으니 책임져야 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논리도 그렇지만 굳이 그렇게 해야만 한다면 책임을 져야하는 사람은 우리들이지 않을까... △공무원 쟁쟁대지 마세. △대구에 지하철은 많은데 '살마가 사람잡는다'는 격언을 확인한 사건의 하나. △1인 승무원 제도가 다 뭐가요.

서울 ☎ : 2260-3491 · 2 FAX : 2279-1270 경주 ☎ : (054) 770-2058 FAX : (054) 770-2057 문의·제보 : dgupress@dongguk.edu 독자들의 의견이 담긴 원고지 3~4매 분량의 산문이나 시, 만화 또는 사진을 기디합니다. 채택된 분께는 소정의 교료를 드립니다.

미국의 명분 없는 전쟁에 반대하는 국제 사회의 분위기와는 달리, 우리 정부는 이라크 전쟁 지원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이미 '테러와의 전쟁 협력과 한미동맹 관계'를 고려해 이라크 전쟁 지원을 고려"해 온 정부는 개전이 초읽기에 들어가자, 비전투병 파병을 중심으로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일단 제1차 결프전 또는 아프가니스탄 전쟁 수준의 파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수송, 의무, 공병 등 미군의 전투를 후방에서 지원하는 형태로 300~500명의 비전투요원과 C-130 수송기 등 관련 장비가 걸프 지역으로 파견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쟁 비용 및 전후 복구비용으로도 적지 않은 예산 지출이 예상되고 있다.

한미동맹 강화 목적 그러나 전투병 파병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 독일, 벨기에 등이 이미 반전 입장을 명확히 하면서, 이라크 전쟁 지원 불가 방침을 밝혔기 때문에, 미국으로서 이들을 국가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한국과 같은 다른 동맹국들에게 전투병 파병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한국군 일각에서도 연합작전 능력 제고, 전쟁지역에서의 다양한 군사작전



논단 정옥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전쟁 '따라나선' 정부

경험, 전후복구사업 진출기반 확보 등을 이유로 전투병 파병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우리 정부의 대이라크 전쟁 지원 동기는 한마디로 "한미동맹 유지·강화 비용"으로 설명할 수 있다. 즉 우리 정부가 이라크 전쟁 지원에 미적거리면, 한미동맹관계에 균열이 생길 수 있고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에서도 낙오될 수 있으며, 전후 석유 이권 분배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이유로 가능한 수준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와 군의 인식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에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

다. 우선 정부 차원에서 이라크 전쟁을 기정사실화하고 지원을 준비하는 것은 이라크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추구하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반할 뿐더러, 정부 스스로 외교적 입지를 좁히는 결과를 낳게 된다. 지원 방침을 밝힌 상황에서 나중에 이를 철회하기가 더욱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전쟁을 막아볼 생각은 안하고, 전쟁을 기정사실화하면서 편협하고도 불확실한 국익을 추구하겠다는 발상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정부는 또한 이라크 전쟁을 지원할 경우, 그 결과에 대한 깊이 있는 사려가 필요하다. CIA 전

직 관료들조차 경고하고 있듯이 미국의 대 이라크 침공 강행은 전세계에 걸쳐 미국 및 이라크 전쟁에 지원한 국가들에 대한 광범위한 테러를 낳을 가능성이 높고, 한국이 이라크 전쟁을 지원할 경우 테러의 표적으로 한국 및 해외 교포들도 예외될 수 없다. 또한 이슬람국가 및 국민들과의 관계 악화도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다.

한반도 위기 고려해야 근본적으로는 국제사회에서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이라크 전쟁을 한반도의 남쪽인 한국이 지원하고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도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미국이 북한과의 협상에 임하지 않은 채 이라크 전쟁을 강행하면, 북한의 핵 시위는 한층 높아질 가능성이 높고, 이라크 전쟁 종결 이후 미국의 충구가 북한으로 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반도의 위기가 고조된 상태에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할 때, 명분과 도덕성은 대단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 명분 없는 대 이라크 전쟁에 대한 한국의 지원이 갖는 근본적인 위험성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오늘의 이슈

중국인 입학생 "어릴때부터 한국문화에 관심이 많았어요"



2003년 3월,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로 설레이는 시기이다. 여기 타 입학생보다 더욱 긴장된 마음으로 새학기를 기다리는 이가 있다. 바로 낯선 이국 땅에서 홀로 대학생활을 준비하고 있는 중국인 동동(문과대 1)양이다. "한국에서 한중 문화교류의 현장을 직접 보고 싶었어요." 동양은 무역 회사를 경영하는 아버지의 영향으로 한국의 사회와 문화를 어릴 때부터 많이 접해왔다. 또한 고교시절에는 역사수업을 들으면서 남북의 분단과 통일에 관해 알게 됐고,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많이 보면서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이 더 커졌다. 결국 대학입시를 앞두고 본격적으로 한국에 대한 공부를 해 보겠다는 생각으로 한국행을 결심했다. 지난 2001년 4월의 일이다. "처음 한국에 와 보니 가장 문제가 되는건 역시 '언어'였어요. 그래서 밤을 새우거나 악작같이 공부했죠"

한국어를 꾸준히 공부한 덕분에 친구들도 제법 사귀었다. 특히 대학교 입학 시험을 볼 때 알게된 친구는 앞으로 대학 생활을 하는 동안 함께 할 수 있는 가족 같은 존재이다. "외국인이라고 더 많이 배려해주는 친구들 때문에 한국 생활에 쉽게 적응할 수 있어 항상 고마울 따름이죠." 혼자서 해 나가야 하는 이국 생활이 외롭게 느껴지지 않았던 것은 이러한 친구들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래서인지 지난 한달간 고향에 머무르면서도 한국이 그리웠다고 한다. 하지만 동동 양이 한국에서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 중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대학 주변의 술집들이다. 특히 지난 2년 동안 대학생 친구들을 보면서 대학생의 음주문화에 놀랐다고 한다. "함께 어울리는 것도 좋지만 수업에 빠지면 술을 마시는 것은 자제해야 하지 않을까요?"라며 한국 대학생에 대한 충고를 잊지 않는다. 앞으로 그의 목표는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하는 것과 많은 친구를 사귀는 것이다. 그녀는 학교에서 중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친구에게 중국어를 가르쳐 주고, 자신은 그로부터 한국어를 배우면서 학문과 우정,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생각이다. 이제 동양에서 활발한 '한중문화교류활동가'의 역할을 할 그의 모습을 기대해본다. 한수희 기자 nature41@dongguk.edu

이런 동국을 바란다

지난 3월 1일 제15대 홍기삼 총장이 취임했다. 이에 새 총장과의 소통 기회가 없었던 일반 학생들이 학교에 바라는 점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편집자

박동진 (건축공학4)

"도서관보유량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대학 교육환경의 질을 가능하는 척도 중 하나가 바로 도서관일 것이다. 그런데 우리 학교는 도서관보유현황이 너무나 열악한 것 같다. 70만 권이라고 하는데, 한 종류의 책에 두 세 권의 복사본이 있는 것까지 감안하면 실제 도서관보유량은 그 절반 정도로 보아 아깝지 않을까. 또한 어디서나 구하기 쉬운 인기도서관은 많지만 정작 필요한 전공관련 도서관 원서는 좀처럼 찾기 힘들다. 결국 다른 대학에 다니는 친구를 통해 다른 대학 도서관을 이용하거나 국립중앙도서관까지 직접 찾아가 전공관련원서를 구하기 일쑤다. 적어도 우리학교 도서관을 바꾸고 두 번 수도하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 매년 오르는 등록금이 아깝지 않은가.

한유미 (사과대2)

"등록금인상에 대한 대책 마련해줬으면."

일단 올해 등록금이 과도하게 오른 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줬으면 한다. 지방에서 온 나로서는 방 값 등 생활비에 대한 부담까지 겹쳐 이번 등록금 인상이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앞으로 나왔으니까 하는 말이지만 우리학교에 다니는 지방 학생들의 경우 잠자리에 대한 문제가 큰 골칫거리가 아닐 수 없다. 학교 주변의 방 값이 비쌌는데 불구하고 기숙사가 없는 것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처음 방을 구할 때에는 정보를 얻을 만한 곳조차 없어 더욱 고생을 하게 되는 것이다. 학교 홈페이지에 '복덕방'이라는 것이 있지만 전화번호조차 나와있지 않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신입생 단계별 영어 프로그램

동국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에서 2003년 신입생을 대상으로 특별히 준비한 영어 수업으로, 대학생에게 필수적인 영어회화, 토익을 체계적으로 학습하는 과정입니다. Placement Test를 통하여 레벨에 맞는 최적의 학습단계를 결정하고 기초부터 고급까지 체계적인 영어학습을 통하여 자연스러운 언어구사력과 토익고득점에 기반을 탄탄히 닦아주는 매력적인 수업입니다. 지금 신청하십시오!

- 특징
- 영어회화 및 토익 동시 수강으로 인한 영어능력의 극대화
- 담당평가를 통한 철저한 관리제
- 상위 10% 성적우수자 장학금 지급
- (다음 학기 어학원 단계별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학증서로 줌)
- 경제지원대상자 등록금 반례 지원
- 자격 : 부모의 재산세 과세가 없는 자(본인이 호주인 자는 자신의 재산세 과세가 없는 자)
- 범위 : 총 수강생의 20%에 한함
- 제출서류 : 부모 재산세 납부 증명서

Table with 3 columns: 강의를시간, 단계, High beginning, Intermediate. Rows for 오전 and 오후.

- Placement Test를 통한 반편성
- 1일 120분 주 4회 수업
- TOEIC 수업의 경우 교차수강 가능 (오전반 등록시, 같은 레벨의 오후 토익수업 수강가능)
- 언어연구교육원 전입의 우수한 강사진
- 신입생 영어 연속 등록시 수업료 5% 할인
- 언어연구교육원 WEB-TOEIC 무료수강
- 해당기간 중 모의 토익 테스트 무료 응시 혜택
- 추후 고급반 개설예정

- 단계별 학습내용
1. TOEIC
- 기본(High-beginning)
- TOEIC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학습법 습득
- 기초 영문법 정리학습
- 의사소통 및 L/C강화 학습 (2회 수강으로 600점 목표)
- 중급(Intermediate)
- 어휘보충학습에 주력
- 독해 영작학습에 역점
- R/C중 오픈 정정 문제 주요 학습
- 기출문제 풀이 (2회 수강으로 750점 목표)

- 2. 영어회화
- High-beginning
- 상대방의 말을 거의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단계로, Listening부터 체계적으로 학습을 요하는 단계
- L/C 강화 학습
- 간단한 일상 생활영어 적용 훈련
- 외국인과의 거부감 해소
- Intermediate
- 상대방의 말을 어느 정도 알아듣으나, 적절한 Speaking이 안되는 단계
- 일상생활영어 원숙 단계
- 고급어휘 보충학습
- 발음 및 억양 훈련
- 외국인의 사고 관습 이해

- 등록안내
1. 수업기간 : 총 10주 과정
- 3월 17일(월) ~ 4월 18일(금) : 5주 (중간고사 기간: 특강 포함)
- 5월 12일(월) ~ 6월 16일(월) : 5주
(2차 수업 예정일 : 6/30-7/25, 7/28-8/2)
2. 등록기간 및 과정
- 등록기간 : 2월 24일(월) - 3월 7일(금) 선착순 마감
- 등록과정
- 언어연구교육원 사무실 앞 접수대에 비치된 수강 신청서 작성
- 수강신청서, 수업료를 사무실에 제출
- 영수증, 인터뷰 시간 받기

- 3. Placement Test 일정 : 3월 11일(화)-3월 12일(수) 양일 중 수강자가 택함
4. 수업료 : 350,000원 (교재 제공, 일체 추가비용 없음)
- 분할납부 가능 (단, 4월 18일 이전 완납)
- 온라인 입금 가능 - (계좌번호는 사무실로 연락바랍니다.)
5. 진급규정
- 80%이상 합격
- 중간·기말고사 80점이상

- 환불 및 등록 취소에 관한 유의사항 : 등록 취소 시 개강 3일 동안만 80% 환불됩니다. 개강 후 일주일간 다음 차수로 1회 연기 가능. 이후, 기타 다른 사유(예: 수업을 한번도 듣지 않았다. 시간을 맞출 수 없다 등)로 환불 또는 연기할 수 없습니다.

문의
TEL: 2260-3470/1/ EMAIL: today@dongguk.edu/ HOMEPAGE: http://today.dgu.ac.kr
근무시간: 오전 9:00-오후 5:00 (하계·동계방학 단축근무 시 오전9:00-오후 3:00)

동국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The Center for Language Research and Instruction

금주의 식단

Table with 4 columns: 동국관, 상록원, 교직원, 월(3/3), 화(3/4), 수(3/5), 목(3/6), 금(3/7). Rows list menu items and prices for each location.

제15대 홍기삼 총장 취임사

시장논리에 따른 양적 팽창이 아닌 연구·교육의 전당으로

친애하는 동국대학교 교수 직원 학생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저의 제15대 동국대 총장 취임을 위하여 같은 대학의 공동운명체로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대학 내에서 맡고 있는 역할이나 처해 있는 우리들 각자의 위치는 비록 다를지라도 우리 대학의 앞날을 걱정하는 점에서는 모두 한마음이리라 생각합니다. 총장에 취임하는 지금 이 순간 저는 우리 대학의 건전하고도 지속적인 성장에 대한 대학 구성원들의 기대가 얼마나 높은가를 다시 한번 절감합니다. 저는 대학 운영의 귀중한 기회를 얻었다는 사실에 영광을 느끼기에 앞서 대학 구성원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여러분, 모두 아시다시피 우리 대학은 지난 수 년 동안 교육 개혁의 대세에 따라 급격한 변화의 시기를 거처왔습니다. 학부제 실험을 비롯한 많은 개혁 노력은 대학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가 우리 대학에 요구한 체질 개선의 일환이었습니다. 대학 스스로 넓은 관경을 확보하지 않으면 오늘날의 대학간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 남기 어렵다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엄중한 진실입니다. 그러나 수 년간 우리가 경험한 것은 대학 구성원들의 민주적 합의에 기초하지 않은 제도 개혁의 실험이었으며 그만큼 많은 혼란과 분규를 가져온 실험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개혁 시도는 그 의도가 무엇이었던 결국 우리 대학 운영을 시장의 논리에 맡겨버렸고 우리 대학 내에 시장 전체주의를 성립시킨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장의 논리에 따라 양적 팽창을 추구하는 것은 이제 서둘러 청산해야 할 낡은 관행입니다. 이제 대학은 스스로를 돌아보고 얼마나 대학다운 대학인가를, 대학 고유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저는 우리 대학을 비롯한 한국의 대학이 현재 당면한 과제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보다도 연구와 교육의 전당으로서 대학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에서 연구와 교육은 다른 어떤 활동보다 존중되어야 하고 연구와 교육 수준 향상은 다른 어떤 목표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연구와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는 대학 기구의 부흥이 아니라 무엇보다 소중한 자산

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저는 동국대 총장 재직 기간 동안 우리 대학의 연구 능력과 교육 능력을 제고하여 대학 본연의 기능을 다하는 대학으로 만드는 데에 행정의 일차 목표를 두고자 합니다. 교수들이 연구와 교육에 전념할 수 있고 학생들이 자기연마에 정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학에는 대학 행정의 민주화에 대한 요구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높습니다. 저 자신 대학 구성원들의 소통과 합의에 기초하는 대학 행정 체계의 확립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장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저는 대학 구성원들이 주요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민주적 합의 체제를 강화함과 동시에 행정 구성 단위들의 자율권이 신장되도록 총장 권한을 분산하는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학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최대한 높이고 민주적인 대학 운영의 모범을 만들고자 합니다.

친애하는 교수 직원 학생 여러분, 근래 우리 나라 대학은 저마다 변화의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 대학에 변화가 요구되는 주요 이유 중 하나는 동시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력을 대학이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첨단 정보 기술 인력을 비롯한 인력 양성과 공급은 대학이 짊어지고 있는 사회적 책임의 중요한 일부입니다. 그러나 대학에 축적된 연구 및 교육 자원만으로 모든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키기는 어려운 형편입니다. 우리 나라 대학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지식과 기술의 신속한 발전을 선도하기는커녕 따라잡기에도 부족한 열악한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다고 인력 양성의 임무를 저버릴 수는 없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대학과 기업의 협력 관계를 강화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를 놓고 깊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대학이 그 나름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지키면서 가장 생산적인 산학협동 체제를 이룩할 방법이 무엇인가 찾아보겠습니다.

2006년이 되면 우리 대학은 개교 10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한국의 사립대학에서 100년이란 결코 짧은 역사가 아니며 파란 많은 현대사를 생각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 대학은 민족과 국가가 고난에 처한 시절 불교

로 대표되는 전통 문화와 새롭게 등장한 현대 학문의 접합을 추구한 선각자 스님들의 발원으로 세워졌습니다. 전통과 현대의 결합은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도 우리 대학의 정체성의 근본을 이룬다고 생각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축적된 우리 대학의 특성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는 우리 대학 구성원 모두의 과제입니다. 대학간의 경쟁이 치열하면 치열할수록 우리 대학 고유의 특성을 재인식하고 동시대의 요구에 맞게 개발하려는 노력이 요망됩니다. 생태학적 사유가 전지구적 관심사가 되어 있는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교문화는 중요한 자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대학을 불교생태학의 본산지로 육성하여 전통과 현대의 결합이라는 우리 대학의 특성을 더욱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친애하는 교수 직원 학생 여러분, 동국대학교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소수의 사립 대학 중 하나이며 불교문화의 전통 속에서 자라난 국적 있는 대학입니다. 그리고 온갖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그 나름의 위치를 굳건히 지켜왔고 더욱이 무궁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대학입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 대학의 운명을 좌우할지 모를 중대한 시험을 치르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과거는 무거운 부채이며 살아갈 미래는 모호한 약속입니다. 그러나 우리 대학에는 연구와 교육에 몰두하는 교수들, 마치 집을 돌보듯 학교를 돌보는 직원들, 젊은 열정을 학업에 바치는 학생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 교수, 직원, 학생들이 남아 있는 한 우리 대학은 계속 건재하리라 저는 믿습니다. 총장으로 일하는 동안 내내 대학 구성원 여러 분들이 각자의 본분을 다하리라 믿고 여러 분들에게 도움을 구하고 지혜를 청하며 많은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졸업은 어려운 대학이지만 사회 진출은 용이한 대학, 생산적 가치와 정신적 가치를 존중함으로써 이 혼탁한 시대를 바르게 이끌어 가는 역량있는 대학, 밝고 아름다운 역동적 미래를 창조하는 대학을 우리 모두 만들어 나갑시다. 그런 미래를 향하여 우리 모두 새로운 결의를 다집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고 우리 대학 전체에 부처님의 자비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달하나 천강에



윤재웅 국어교육과 교수

새내기 교수가 띄우는 글

봄이네. 봄은 새롭고 활기차다. 초록 제비, 햇빛에 불타는 초록 제비 하늘에 활활 놀고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땅엔 한바탕 잔치다. 풀씨도 보리 싹도 애기똥풀 꽃눈도, 누이가 갓 차려온 고슬고슬한 새 밥 같은 흙들도 이제는 모두가 솟구치고 있다. 작은 발뚱뚱치를 아주 살짝 들어올려 서라도 햇빛의 화살을 더 많이 맞고 싶은 게다. 바야흐로 이런 봄엔 바람이 한결 더 훈훈해지고 그럴수록 청춘의 피는 더욱 잘 돈다. 피는 몸 속을 도는 붉은 바람! 그 바람 속에서 기대와 설렘은 천천히 눈을 뜬다. 그것은 또한 청춘의 가슴속에만 있는 두 개의 보이지 않는 심장! 이 이상한 심장을 가진 청춘들이 이제 우리 동악에 또 다투어 피어나는 것 같다. 특히 새로운 동국 가족이 된 새내기들의 모습은 더욱 화창하다. 환영하고 또 환영한다.

생각해보면 입학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여 년이 훌쩍 지나버렸다. 이제는 모교의 교수로 부임해 '새내기'라는 이름표를 달고 화창한 꽃밭에 들어서게 되었지만 어찌 그때가 그리지 않을 수 있겠는가. 당나라 시인 이태백의 '핏줄이라도 이 어발은 것처럼, 복사꽃 피는 밤마다 시를 안주 삼아 술을 마시곤 했다. 무슨 환영회가 그리 많았던지.....' 그렇게 한 학기가 정신없이 지나가 버리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그리운 강의 시간이 있기는 있겠다. 수학과 전문학을 통해 우주의 신비로운 비밀을 은밀하게 알려주셨던 원로교수 양인기 박사의 자연과학개론 시간, 이틀만 전해지는 신라시대의 시집 '삼대목' 발전소통의 전말을 전격적으로 발표해 잠시 동안 학생들을 흥분시킨 한국 고전소설의 대가 김기봉 교수의 교양국어 시간 등

이 특히 기억에 남는다. 물론 김기봉 교수님의 발표는 자신의 꿈 이야기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지만 그래도 잠시 동안의 흥분은 아직도 가슴에 장이 울리는 듯하다. 그렇다. 대학에서의 공부는 이제까지의 공부와 많이 다르다.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를 선택해서 제 가슴의 짐소리를 마음껏 울릴 수 있는 게 대학 학문의 진정한 미덕이다. 그러나 그 미덕은 기대와 설렘이라는 청춘의 심장이 살아있지 않는 한 좀처럼 찾아오지 않는다. 우리 새내기들도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 자신들의 두 심장이 그대로 살아 있기를 나는 바란다. 봄은 우리를 들뜨게도 하고 실레게도 하지만 잠깐이다. 청춘의 봄 역시 마찬가지로 아니겠는가. 귀히 여겨야 하고 또 아끼며 좋은 씨를 뿌리길 바란다.

책 속으로 들어온 연극 백설공주를 사랑한 난장이

2001년 가을,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에게 또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어느 가수의 뮤직비디오에 반달이(백설공주를 사랑한 난장이)가 등장하면서부터 나는 그동안 잊혀졌던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조금씩 되찾아 가고 있었다. 보고 또 봐도 여전히 감동적인 이 연극을 얼마 전 책 속에서 다시 만났다. 그것은 연극과는 또 다른 느낌이였다. 공주님을 사랑하기에 검은 강물이 넘실대는 깊은 골짜기를 넘고 가시 넝쿨의 숲을 지나 장미요정의 눈물 한 방울을 얻어온 반달이. 특히 취해 잠들어버린 공주님을 구하기 위해 먼 이웃나라까지 단숨에 달려 왕자님을 데리고 온 반달이. 이 모든 것이 공주님을 너무나 사랑했기에 가능했던 것이 아닐까.

하지만 공주는 이웃나라 왕자와 결혼을 했다. 반달이는 그토록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고도 멀리서 공주의 행복을 바라만 볼뿐이었다. 그러나 아직 반달이에게는 공주님께 못다한 고백이 있다. "바람의 언덕을 지나 벌꽃의 호수를 건너 이곳 안개숲에 오신 백설공주님을 진실로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사랑, 주는 만큼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나의 거짓된 사랑은 반달이의 사랑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 그리고 눈물로 얼룩진 마지막 책장을 넘기며 세상 어딘가에 있을 나만의 백마탄 왕자님, 아니 나만의 반달이를 조용히 꿈꿔본다. 마치 반달이의 수줍은 고백처럼..... 박치선 (식물자원2)

2003 새내기 새로 배움터를 다녀와서 백설로 뒤덮힌 설악을 뒤로하고 ...

'아! 이제 나도 어엿한 선배가 되구나. 한없이 후배로만 남아 있을 것 같았는데...'라며 설레임으로 잠 못 이루던 지난밤의 기억도 잠시, 설악산으로 향하는 동안 서로의 많은 이야기로 서먹하듯 곧 사라졌다. 백설로 뒤덮힌 설악의 웅장한 모습과 새내기들을 맞이한다는 기쁨이 우리를 더욱 들뜨게 한 것이다. '동악에 설레는 희망, 새로 눈뜨는 불교대'라는 우리의 새터 기조에 맞게 설악에 동악의 기운을 새로이 불어넣었다. 2박3일간의 짧은 여정이었지만 선후배간의 협동심을 보았고 앞으로 좋은 결실을 맺을 것이라는 확신을 하였

03학번 새내기 후배에게 지혜로운 자는 반석위에 집을 짓는다

새내기란 말은 선배들을 설레이게 하고 한해의 희망을 갖게 합니다. 대학이라는 새로운 공간에 첫발을 내딛는 새내기 여러분도 새하얀 도화지에 빛나는 청춘 시절을 어떻게 그릴건지, 무엇을 그릴건지, 그리고 누구와 함께 그릴건지에 대한 고민과 설레임이 가득할 것 같습니다. 멋진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 만나보고 또 대학생이 할 수 있는 많은 경험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가치있는 것들을 추려낸다면 빛나는 청춘의 멋진 그림이 될 것입니다. 새내기 때가 생각납니다. 신입생 등록을 하고 본관을 나설 때 만났던 한 선배가 제게 이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지혜로운 자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어리석은 자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 대학생활에서의 반석은

다. 우리는 온통 눈으로 덮힌 설악에서도 파란 풀이 돋는 소리를 들었다. 우리는 봄이 오는 소리를 들음으로써 새로운 생활을 잘해나갈 것이라 믿는다. 지금까지의 짧은 이야기로 이번 새터의 맥을 짚는다는 것은 무척이나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한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그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학생활을 시작하면서 평생을 가져갈 수 있는 젊음의 추억을 남기고 온 것이다. 이번 새터는 앞으로의 더 좋은 만남을 위한 첫 발자욱이었다. 김건욱 (인철2)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기초가 될 올바른 인생관 그리고 가치관을 정립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짧고 어색한 만남이었지만 그 말이 대학생활에 큰 영향을 끼친 것 같습니다. 멋있는 그림과 튼튼한 반석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고민하고 시대의 이성인으로서 자신보다는 남을 조금 더 생각할 줄 알고, 용서 그른 것이 무언인지를 알고 좀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주체적으로 실천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그리고, 만들 빛나는 청춘의 멋진 그림과 반석이 더욱 빛나고 튼튼할 수 있는 대학생활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종관 (역교3)



동악광장

축하합니다
△불교대 03학번들아~ 입학 축하한다. -순수02
△정산대 03학번 여러분 입학 축하합니다. -정산대 학생회장
△효상아! 100일을 축하한다.
△국어교육과 03학번들의 입학을 축하해요. -99선배들
△김중호가 새 편을 샀어요.
△생자대 오정근. 귀빠진 것 축하해
△상현아! 150다마 된 것 축하한다.
△이시수군의 생일을 축하해요. 3월 5일입니다. -윤지누니가
△정원아! 우리 D-150 축하. -표
△지리교육과 03학번 입학 축하합니다. -재학생일동
△문창과 00학번 김지선 생일 축하할까말까 -메롱
△인천 인명여고·인항고 졸업하신 신입생 여러분, 입학 축하합니다. 3월 21일 6시에 만나요. -인명2회 졸업생 주영이

수고하셨습니다
△정산대! 새터일꾼 자부남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미당! 새터준비 한다고 수고 많았습다. -97상희
△경영대 새터준비 한다고 수고하셔요.

열심히 합시다
△불교대 03학번! 술 열심히 마십시오.
△지교과 03학번 공부 열심히 합시다.
△국문, 문창! 희곡분과 신입생 환영공연 연습하는 희곡분과원 파이팅!

그리고...
△정원아! 빨리 시집가자
△강택구 교수님! 미국 잘 다녀오세요. 건강하세요!
△이번 학기는 후회하지 않는 생활을 하도록 합시다!
△등록금 제발 다시 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네겐 너무 가벼운 남녀관계’라고?

연예인 짝짓기 프로그램 대리만족 등의 효과로 인기 상승 성역할 고정화·외모중심주의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 많아

MBC ‘강호동의 천생연분’을 선두로 KBS ‘자유선언 토요일작전-산장미팅 장미의 전쟁’, SBS ‘러브루 나잇-러브 오딧세이’까지 연예인을 대상으로 하는 짝짓기 프로그램들이 주말 저녁 황금시

간대를 점령했다. 때문에 한 방송사의 프로그램이 끝나고 채널을 돌리면 또다른 방송사의 연예인 짝짓기 프로그램을 볼 수 있다. 아니, 볼 수 밖에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연예인 짝짓기 프로그램은 원조 격인 MBC ‘사랑의 스튜디오’와 달리 출연자가 연예인이라는 점에서 사생활 엿보기, 대리만족, 팬덤 등의 효과를 보며 높은 시청률을 자랑하고 있다. 하지만 방송시간의 경쟁이 가열되면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다.

먼저 남성성, 여성성의 고정화를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장기자랑 코너에서 선정적인 춤을 선보이는 여성 출연자들에게 환호하는 장면, 여성 출연자를 업고 오래 버티는 남자를 지지하는 장면 등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와 관련해 이통후(인천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신문과 방송’ 2003년 2월호를 통해 “여성 출연자들은 수동적이고 의존적인 존재라는 고정 관념에서 벗어나 자신의 맘에 드는 남성을 선택하고 자신의 성적 매력을 마음껏 뽐내는 적극적인 면을 보이지만 여전히 전시되고 남성의 시선에 종속되는 대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선택의 과정에서 드러나는 외모 지상주의도 문제다. 외모가 뛰어난 출연자와 그렇지 않은 출연자를 비교하며 ‘못난이’ ‘만신창이’ 등 출연자를 비하하는 사회자의 진행은 이미 오락 요소의 하

나로 자리잡은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강혜란 사무국장은 “시청자로 하여금 남녀관계에서 외모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인식하도록 한다”며 “매주 파트너가 바뀌는 진행방식은 나아가 남녀관계를 매우 가벼운 것으로 전락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연예인 짝짓기 프로그램이 안고 있는 문제점의 바탕에는 외적인 요인도 큰 비중을 차지한다.

우선 각 방송사가 시청률을 이유로 비슷한 형식의 프로그램을 경쟁적으로 편성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것은 수요자의 채널권을 공급자가 제한하는 결과를 낳는데 이는 지난해 재연프로그램이 공중파 방송사에서만 30여 개가 편성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이처럼 시청률에만 의존한 채 질이 담보되지 않은 프로그램을 무작위 편성하는 것은 우리 방송계의 고질적인 병폐로 보인다.

또한 출연자들의 겹치기 출연도 문제점으로 꼽을 수 있다. 일부 출연자들은 이미 다른 방송에서 선보인 장기를 반복해 시청자들의 비난을 받기도 했다. 이는 출연자의 인기 뿐 아니라 일부 거대 기획사의 방송계 독점과도 관련이 있다.

이처럼 안팎으로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는 연예인 짝짓기 프로그램은 위에서 언급한 프로그램 외에도 코너의 형식을 빌려 점점 늘고 있는 추세이다.

바쁜 연예인들에게 이성과의 만남 자리를 주선한다는 의도에서 빛나 ‘참을 수 없이 가벼운’ 남녀관계만이 부각되고 있는 연예인 짝짓기 프로그램. 방송사가 시청률에 의존한 방송 편성에 대한 변명으로 시청자를 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없듯이, ‘나 오니까 본다’식의 반강제적인 시청자 역시 방송 프로그램의 부작용 앞에 고개를 숙일 도리 밖에 없는 것은 아닐까.

김하나 기자
sellyone@dongguk.edu



관람객이 필요충분조건인 이색 전시회 ‘새로운 희망전’

‘마음대로 만져 보고 자신만의 특별한 작품도 직접 만들어 보세요.’ 만약 당신이 찾는 미술관에 이러한 문구가 쓰여 있다면 어떨까. ‘손대지 마시오’라는 문구에 익숙한 우리에게 이는 낯설게 다가온다. 그런데 실제로 이러한 전시회가 열려 눈길을 끌고 있다. 일반인들에게 폐쇄취급 당하는 색 바랜 신문, 돌맹이를 작품으로 승화시켜 전시·판매하는 ‘희망시장’이 바로 그것이다.

지난해 5월 흥대 앞 놀이터에서 처음 열린 희망시장은 매주 일요일마다 작품전을 진행해 왔다. 그런데 이 행사가 확대돼 오는 15일까지 관악역 근처 석수시장에 마련된 보충대리 공간 스톤 앤 유티에서 ‘새로운 희망전(이하 희망전)’이라는 기차 아래 특별 기획전으로 개최된다.

희망은 작가가 직접 재래시장을 찾아가 자기 작품과 시장의 물건을 교환하는 이벤트. 서울과 안양을 잇는 지하철 안에서 작품을 진열해 희망전을 홍보하는 퍼포먼스 등을 진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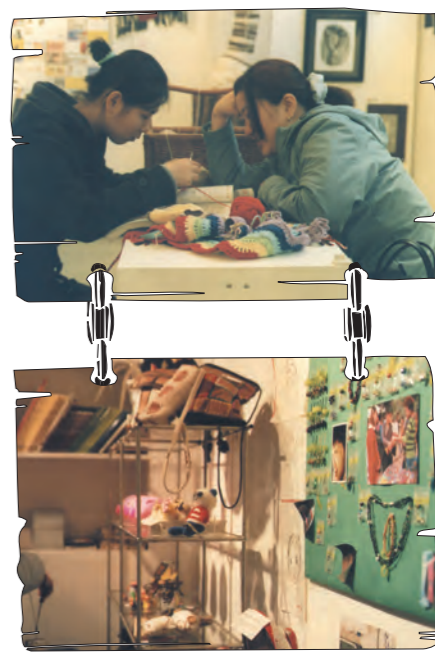
특히 두명의 작가가 전시장을 찾은 관람객의 초상화를 그려주는 행사는 많은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올 한해 어떤 일이 이뤄졌으면 좋겠어요?’ ‘딸기씨는 왜 밖에 있을까요?’ 등 다양한 질문이 쓰여져 있는 종이 띠가 담긴 캔디를 판매하고 관람객들이 작성한 답안을 전시하는 ‘육방의 사랑’ 행사도 진행된다. 이 외에도 관람객이 인형을 만들고 판매까지 하는 ‘지점도 인형 만들기’, 온수기로 발의 피로를 풀어주고 발에 물감을 칠해 발도장 방명록을 작성하는 ‘발마사지 프로젝트’ 등의 행사도 주목할 만하다.

이와 관련해 큐레이터 심소미 씨는 “이번 행사는 그 동안 예술을 일상과 동떨어진 범주라고 여기던 사람들에게 작가와 동등한 위치에서 작품에 참여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첨체된 전시회 문화에 활기를 불어넣는 계기

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대부분의 전시회에서 관람객은 유리창에 진열된 작품을 감상만 하는 수동적인 역할을 맡는다. 또한 작품 만들기에 직접 참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만져보는 것조차 어렵다. 때문에 시민의 능동적인 참여가 작품의 밑바탕이 되는 이번 전시회가 더욱 큰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현재 학내에는 많은 예술 행사가 개최되지만 학생들의 참여가 활발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는 일반 학생들이 함께할 수 있는 행사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제 학내 전시 행사에도 ‘희망시장’처럼 작가와 관람객이 함께 호흡을 맞추는 행사를 마련해 문화행사를 통해 학생이 한대 어우러질 수 있길 기대해 본다.

한숙희 기자
nature41@dongguk.edu



문화인이 말하는 나의 하루



“한바탕 크게 웃어보실래요?”

서 훈희
식물자원 2

나는 사람들 웃기기를 좋아한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 특이한 행동으로 친구들을 곤란 웃기곤 했다. 얼마 전에는 KBS코미디프로 오디션을 보아 당당히 1등으로 합격하고 TV에 출연해 수상까지 했다. 그 날의 기분을 되살리며 그 날 나의 하루를 소개할까 한다.

16:00 천안역 도착

역 주위를 두리번두리번, 직원과의 결렬한 눈치 싸움, 고도의 작전과 오랜 시간의 시도 끝에 무임승차를 했다.

오디션을 보겠다고 생각한지는 일주일, 그러나 지금까지 정한 거라고는 신검개그라는 주제 뿐이다.

이제 오디션에 임하기 위해 대본을 짜고, 연습을 해야 했다. 기차가 도착하기까지는 한 시간정도 연습할 시간이 있었다. 하지만 시간에 쫓겨 대본조차 완성하지 못한 채 기차에서 내려야 했다.

17:40 영등포역 도착

영등포역에서는 표 검사에 바짝 신경 써야 했다.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는 가운데에 합류해 역 직원의 첩통같은 감시를 빠져 나왔다. 여의도역에서 급한 나머지 비싼 택시를 탔다. 알고 보니 바로 앞이 KBS 방송국이었다.

18:00 오디션 시작

전국에서 오긴다 하는 사람들은 다 모였다. 그들은 하나같이 연기력이 풍부했고, 오랫동안 연습 기간도 있어 보였다. 내가 연습한 시간은 서울로 오는 기차에서의 단 한시간. 아직 대본조차 완성되지 않았다.

다른 팀이 오디션을 볼 때 우리는 뒤돌아 앉아 연습을 했고, 마침내 오디션에 합격했다. 하루종일 한끼도 먹지 않은 우리는 합격의 기쁨을 만끽하며 편의점에서 컵 리면은 사 먹었다.

22:00 영등포역

또다시 무임승차에 성공. 긴장을 늦추지 않고 천안역에서도 무사히 빠져 나왔다.

오늘 하루 동안의 경비는 택시기본료 그리고 컵 리면 값.

오늘도 동약을 오르며 화과친구들에게 어떤 개그를 보여 줄 것인가를 생각한다. 지금 나는 앞에 가는 침울한 표정의 여학생을 웃다가 까무러치게 만들 계획을 짜고 있다.

문화단신

방송위원회 정착

지난해 모든 방송사가 ‘한국영화편성비율 25%이상’이라는 방송위원회의 고시를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00년 스크린쿼터문화연대가 실시한 방송위원회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방송위원회에 도입이 방송사로 하여금 일정율의 한국영화 편성과 더불어 미국영화의 독점방영 현상을 방지했다는 평가이다.

반면 문화다양성의 확보를 위해 지난해 처음 도입된 월간 ‘1개 국가 제작물 편성비율 60%이하’의 규정은 모든 방송사가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왔다.

또한 방송사의 전체영화가 주시청시간대 이후에 편성돼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화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천 문화산업 아카데미 센터 설립

‘부천문화산업 아카데미센터’가 올해 다양한 문화산업의 기반으로 부천시에 설립될 예정이다.

이 아카데미센터에는 만화와 애니메이션, 게임, 캐릭터 등의 유망문화콘텐츠 업체를 입주시켜 전문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또한 부천대 등 3개대학의 만화 애니메이션학과, 만화정보센터, 삼성경제연구소, 한국만화박물관과 함께 △부천문화산업 클러스터 구축 모델화사업 △부천소재 대학 만화학과 졸업생 입주업체 취업 △산-학-연-관 공동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해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디지털아트 관련 기업의 집적화와 입주업체간의 네트워크를 통해 첨단문화단지 조성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매체비평

광고 편

2% 부족할 때

“소비자와 쌍방향 의견교환 매체간 융합 통한 시너지 효과”



TV광고에 인터넷 매체를 도입해 소비자의 참여를 유도한 광고 2% 부족할 때.

최근 장안에 '2% 부족할 때' 광고가 화제다. “날 물로 보지마”, “나는 노는 물이 달라”, 등 초기 제품의 물과의 차별성을 강조한 컨셉에서 정우성 & 전지현 편에

서는 “사랑은 언제나 목마르다”라는 보다 감성적이고 감각적인 카피로 소비자들에게 다가갔고, ‘전지현 & 조인성 편’에서는 기존의 감각적인 어필과 과격적인 상황설정을 통해 표적소비자들(10대 후반~20대)의 호기심자극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TV 광고를 인터넷매체와 긴밀하게 연결함으로써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체의 융합(media mix)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노리고 있다.

TV 광고에서는 의도적으로 스토리라인을 부분적으로만 보여주고 나머지 생략된 스토리는 인터넷에서는 찾아볼 것을 유도함으로써 소비자의 궁금증을 유발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가 TV 광고가 끝난 후에도 자발적으로 인터넷에서 추가적인 정보를 찾아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광고효과와

극대화를 꾀하고 있다. 이는 매체의 특성상 소비자가 프로그램 전후에 수동적으로 노출되는 TV 광고와는 달리 인터넷은 소비자에게 노출되기 위해서는 사용자 스스로 사이트를 찾아와야 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호기심을 자극함으로써 광고에 대한 소비자의 주목도를 높이는 동시에 자발적 노출을 위한 동기유발이라는 이중적 목표를 성취하고 있다. 이를 매체의 노출효과 측면에서 본다면 TV라는 대중매체를 통해 1차적으로 가급적 많은 사람들에게 광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이들 중 광고에 관심을 보이는 표적소비자들이 스스로 인터넷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광고에 노출되도록 함으로써 광고 도달률(reach:광고에 노출된 사람들의 비율측정단위)과 노출빈도(frequency:개인 당 중복노출횟수)를 증대

시켜 메시지 효과의 강화를 꾀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 광고의 말미에 사랑은 이상인 것인지 혹은 현실인 것인지에 대한 물음을 던지고 토론방을 개설하여 소비자들의 추가적인 참여를 이끌고 있다.

인터넷은 텔레비전에 비해 광고노출비용이 훨씬 저렴하고 광고주와 소비자 혹은 소비자들 상호간에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쌍방향성(interactivity)을 가장 큰 특성으로 하며 개인이 원하는 시간에 언제든지 반복적으로 자료를 볼 수 있고 최근에는 동영상, 애니메이션, 3D 입체음향 등 리치미디어(Rich media)적 특성들이 결합되면서 다양한 표현들이 가능하게 되고 효율적인 광고매체로 부각되고 있다. ‘전지현 & 조인성 편’에서는 이러한 특성들이 TV 광고와 효율적으로 융합되도록 기획되

었고 특히 토론방의 활용은 소비자들의 참여 속에 제품의 구전효과(word-of-mouth)를 통해 광고효과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시도로 보인다.

광고의 목표가 소비자의 주의와 흥미를 유발함으로써 제품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고 궁극적으로 제품판매를 증진시키는 것이라고 할 때 ‘2% 부족할 때’는 호기심이라는 도구와 인터넷의 특성을 활용한 구체적인 새로운 시도로 보여진다. 경쟁사들간의 시장경쟁이 심화되고 소비자들의 입맛이 까다로운 음용시장에서 ‘2% 부족할 때’의 후속광고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소비자들의 관심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해 볼일이다.

최영준
경명대학교 광고학과 교수

대중음악계, 석은 뿌리 자르고 새 열매 맺어라

국내 대중음악계는 이제 더 이상 뒷걸음질 치러야 없다. 몇몇의 대형 기획사 가수들이 TV를 접령하고, 2002년 PR비 파문, 공연장의 부재, 복잡한 저작권법 문제, 음반기획사의 횡포, 계속되는 음반시장의 불황 등. 이처럼 현재의 대중음악계는 지극히 암담하다.

이러한 문제들은 지속적인 대중음악계의 문제제기와 갈등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은 채 다른 문제를 양산하여 여러 가지가 눈더미처럼 쌓이고 말았다.

따라서 이러한 대중음악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뿌리깊게 자리

한 대중음악계의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나 대중음악 시스템의 안정화를 갖춰야 한다.

우선 가장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음반시장을 둘러싼 문제이다. 음반시장은 그동안 합리적인 경영마인드 부족, 공정하지 않은 홍보경쟁, 불투명한 음반시장 등의 문제점을 드러내 왔다. 따라서 유통구조의 현대화와 합리적인 마케팅 시스템 도입, 음반판매의 정확한 통계 등을 중심으로 한 음반시장의 투명성과 합리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더불어 음반산업의 제도정비 - 법적, 기구 개편 등 - 가 동반되어야 하며 이는 정부기관의 개편과 음반 업계를 둘러싼 단체들의 역할조정의 문제로 해결할 수 있다.

음반시장의 체계화와 더불어 중요한 것은 바로 음악콘텐츠의 종다양성 확대와 대중들의 수용기회 확대 문제이다. 현재 흥대를 거점으로 한 인디음

악을 비롯하여 비주류 소수음악시장은 독자적인 시장구조를 형성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언더그라운드 음악 시장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현재 주류시장의 방식이 아닌 독자적인 유통구조가 정립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에 대해 정부에서는 사전제작지원 등 비주류음악의 다양성이 공존될 수 있는 진흥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현재 TV에 국한되어 있는 음악콘텐츠의 대중 수용기회를 확대하고, 비주류음악이 공존할 수 있는 채널의 신설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더불어 다양한 방식의 음악콘텐츠의 홍보 매체를 개발해야 할 것이다.

음반시장의 탄탄한 기반마련과 음악콘텐츠의 다양성 확대와 함께 풀어야 하는 과제는 바로 라이브 공연 환경 조성을 위한 공연인프라의 구축이다. 대중음악의 발전을 위해 공연활동이 활발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사실

이다. 그러나 변변찮은 전문공연장 하나 없고, 파다한 공연조세·간접세·대관절차의 어려움 등은 공연을 어렵게 한다. 따라서 소형·중형·대형 등 다양한 공연장이 건립되어야 하며 공연세제해택 마련과 공연기술인력양성 등을 통해 공연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2002년 한해 매출 기준 25% 감소 추정’, ‘2002년 순익분기점 근접 앨범수 전체 앨범수의 10% 미만’, ‘32개의 도매상 20여개로 축소, 5000여개의 소매상 2000개미만으로 축소’. 이것이 바로 현재의 대중음악계의 모습이다.

그러나 대중음악 발전을 위한 대안은 명확하다. 결국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을 위한 노력을 시도한다면 대중음악은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김형진
문화연대 매체문화위원회 간사

‘대중음악 개혁을 위한 연대모임’ 관계자 인터뷰 인디밴드와 함께 라이브 공연문화 만들기



요즘 일부 음반기획사의 독점과 음반판매에만 치중하는 편파적인 대중음악의 현실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이에 대중음악개혁을 위한 연대모임(이하 대개련)의 상근활동가 고은씨를 만나 활동내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들어보았다.

- 대개련을 창립한 계기는.
= 라이브 공연 문화가 점점 설자리를 잃어가고, TV 프로그램에서는 오락·연예 프로그램이 주를 이루게 된 것이 현재 대중문화계 전반의 실정이다. 특히 질적인 발전을 뒤로한 채 양적인 팽창만 거듭하고 있는 우리 대중음악의 폐단에 심각성을 느껴 이를 개선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에 2001년 3월 상업적인 측면만을 강조하는 가요 순위 프로그램 폐지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고, 한국민족음악인협회, 음반기획제작자연대 등 대중 음악 관련 시민단체들과 함께 뜻을 모아 대개련을 창립했다.

- 대개련은 어떤 활동을 하는지.
= 대중음악개혁 캠페인 정기 정책 포럼, 기자회견 성명서 발표와 거리 서명운동, 각 방송사 가요순위프로그램 관련 공개질의서 발송 등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흥대 앞에서 진행했던 가요 순위 프로그램 폐지와 라이브 공연 문화 활성화에 대한 거리 서명운동은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다. 왜냐하면 일반인은 물론 인디밴드 등 소위 음악활동은 한다는 사람조차 서명운동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몇몇 음악인들이 자신의 일에 수수방관하기 때문에 대중음악 개혁이 더욱 어렵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다.

- 앞으로의 대개련 활동계획은.
= 지난 1일 ‘언니네이발관’ ‘텔리스페이스’ 등이 참여해 모던락 라이브 공연 ‘All that live’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러한 라이브공연을 자주 개최해 공연문화의 뿌리임에도 불구하고 브라운관을 통해 주목받지 못하는 인디밴드 살리기에 주력할 것이다. 더불어 락, 펑크 등 다양한 음악장르의 공존을 위한 활동도 함께 펼칠 계획이다.

한숙희 기자
nature41@dongguk.edu

“대중 입맛 따라 한 우물만 파다간 우물 안 개구리 될 것”



정기석(광고2) 군.

국내 대중음악의 변화를 기대하는 것은 비단 전문가들만이 아니다. 일반 대중은 물론이고 직접 음악활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더욱 그럴 것이다. 이에 분교 락 동아리 ‘피어리스 던’의 정기석(광고2) 군과 학외에서 밴드활동을 하고 있는 나정준(불교대2) 군의 대답을 통해 우리 대중음악이 안고 있는 문제점과 해결책에 대해 모색해 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사회자 = 국내 대중음악의 문제점을 꼽는다면, 나정준(이하 나) = 가장 큰 문제는 장르 획일화이다. 물론 외국도 아이돌 음악의 인기가 높지만, 한 장르가 인기를 끈다고 해서 대중음악계 전반이 획일화되는 우리와는 엄연히 다르다.

정기석(이하 정) = 장르의 종류 뿐 아니라 향유층 또한 중고생 중심인 우리나라와는 다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보통 국내 대중음악 문제점의 대표격으로 립싱크를 꼽는데, 개인적

들려주기 보다 보여주기 우선시되는 문화에서 비롯된 립싱크·짜깁기 ... 공연문화 활성화 되야 새로운 음악장르 정착할 수 있어

으로 립싱크 자체에 부정적인 입장은 아니다. 무대에 올라가 음악을 선보이는 대중음악은 ‘보여주기’ 역시 소홀히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들려주는 것이 우선이 아닐 때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 = 외국의 경우 실력자로 유명한 가수들도 때때 따라 립싱크를 하는 경우가 있다. 관객들 역시 그것을 즐긴다. 반면 우리는 립싱크가 아니면 못하는 가수들이 많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같다. 가수임에도 보여주는 게 우선이 되고 있는 것이다. 외모 중심으로 선발된 가수가 속출하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 아닐까.

정 = 그러한 현상들을 막는 것이 음악하는 사람들의 역할인데 잘 안되고 있는 것 같다. 더불어 듣는 사람들의 의식 변화도 중요하다. 대중음악이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잡은 이상 수요자의 입맛을 따라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사회자 = 창작의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은데, 나 = 일부 곡들이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 즉 짜깁기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같다. 특히 작곡 공부를 미숙하게 한 상태에서 발표하는 가수들의 곡은 더욱 그렇다. 이것은 음악을 하는 사람이 음악을 많이 듣지 않은 데에서 연유한 문제이다. 가수가 일반인들보다 안 들어서야 되겠다. 정 = 어떤 음악을 감히 짜깁기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짜깁기라고 할지라도 창작의 과정을 거쳤으니까 음악으로 존중받아야 하지 않을까.

사회자 = 체리필터, 트랜스픽션 등 언더 락밴드들의 대중화에 대한 의견은.

나 = 타협일 수도 있겠지만 그들이 TV에서 하는 음악은 클럽에서 하던 음악보다 조금 미미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새로운 장르로 대중에게 다가간 것은 좋은 성과라고 생각한다.

정 = 동의한다. 댄스음악으로 획일화 된 음악 시장의 폭을 넓혔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다. 이는 다른 언더 가수들에게 발판 역할을 해주기도 한 것이고.



나정준(불교대2) 군.

사회자 = 국내 대중음악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정 = 공연장 문화가 좀 더 활성화되어야 한다. 이것은 가수들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듣는 사람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공연장에 관객이 많아야 공연장을 많이 짓고, 그게 공연문화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나 = 새로운 음악을 접할 기회를 많이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귀에 익숙치 않으니 듣기 불편할 뿐이다.

정 = 그러려면 정부의 예산 지원이 필수적이다. 관객은 없고 공연장 대여비는 높은 현실에서 ‘싸대기’ 음악을 하는 사람들은 결국 매장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앞으로 새 정부가 문화 다양성 확보의 토대가 되는 대중음악 정책을 펼쳐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하나 기자
sellyone@dongguk.edu

메아리

월담

▲한 여배우, 국회 ‘월담’ 강행하다?
지난달 4일 국회의사당 앞. 짧은 치마 정장 차림의 영화배우가 굳게 닫힌 국회 정문을 넘었다. 왜 굳이 ‘월담’ 하면서까지 국회 안으로 들어가려 했을까.
다름 아닌 ‘대한민국 헌법 제1조’라는 영화 촬영 때문이었다. 윤라녀가 국회의원이 된다는 영화의 내용상 국회의사당 내 촬영이 불가피한 제작사 측에서는 지난해 9월부터 여러 차례 국회에 촬영 허

가를 요청했다. 하지만 ‘국회의 문’은 쉽게 열리지 않았다. “국회의원의 이미지가 실추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한나라당,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안’ 통과 강행하다?
지난달 26일 국회의사당 안. 낯은 정치청산의 강한 의지를 보이며 출범한 새 정부 출범 첫날부터, 한나라당은 총리인잔인을 제쳐놓은 채 ‘낯은 정치’를 되풀이

했다. 왜 한나라당은 총리인잔인을 미뤄 국정 공백을 방치하면서까지 낯은 정치 행태를 고수했을까. 이는 여야의 합의와 조정과정, 국익을 고려한 해법보다 당리당락을 우선시 했기 때문이었다.
▲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표결에 부처, 사실상 한나라당 단독으로 처리한 ‘남북정상회담 관련 대북 비밀송금 의혹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특검)’은 노

대통령의 특검 거부권 행사 여부를 놓고 또다른 논란을 불러왔다. 문제가 남북관계, 나아가 한반도의 평화와도 연결된 민중감고 중요한 사안인 만큼 특검은 신중히 이뤄져야 할 일이기 때문이다.
▲월담까지 강행했지만 국회 내 영화 촬영은 국회의 ‘권위주의’ 벽에 부딪혀 끝내 무산됐다.
한나라당 의원이 원내 과반수를 장악하고 있는 국회는 특검 법안을 끝내 통과시

켰다.
‘이미지 실추 우려’로 ‘문’을 굳게 닫았던 국회가 제1당의 ‘힘의 논리’로 법안을 밀어붙이는 파행을 서슴지 않았으니, 되물고 싶다.
“국회의원의 이미지를 매번 실추시키는 사람들은 다름 아닌 바로 당신들 아닌가요.”
한보라 편집장
hviolet@dongguk.edu

동아리·소모임 탐방 - '바숨'

“분주함 속 만난 평온함, 이게 바로 삶의 쉼터”

매주 뇌호흡·단전호흡 수련... 모금 행사 등 사회활동도 활발

온갖 소음을 내며 셀 수 없이 지나가는 자동차와 지하철, 그리고 그 속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이처럼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도 몸과 마음을 하나로 집중하며 진지한 삶의 모습을 찾는 이들이 있다.

'바르게 숨쉬기' 단학 소모임 '바숨' 회원들이 바로 그들이다.

바숨은 수련을 통해 지성인의 소양을 키우고 인류애를 실천하는 것을 목표로 지난 97년 창립됐다. 창립 당시 뇌호흡에 대한 인지도 부족 때문에 잠시 해체된 바숨은 지난해 3월 본교 이명전(생명화학공학) 교수의 주도로 재창립됐다.

한편, 바숨은 단전호흡이 아닌 뇌호흡을 중심으로 진행한다는 점에서 다른 단학 관련 동아리와 차별성을 띤다.

이와 관련해 이동호(화공4) 회장은 "뇌호흡을 하면 뇌에 산소 공급량이 늘어나 정서적 안정을 돕고 비만을 예방하는 데



정신을 집중 해 뇌호흡을 하고 있는 바숨 회원들.

도 효과적이다"며 뇌호흡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20여명에 이르는 회원들은 매주 화·목요일 체육관에 모여 뇌호흡과 단전호흡 등을 하고, 수련 후에는 느낀 점을 이야기하며 좀 더 나은 수련방법을 모색한다.

또한 학외에서도 공연 형식의 수재민 돕기 모금 행사를 진행하는 등 사회적 활동에 힘쓰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국 80여 개 대학의 연합 동아리인 만큼 타대학 동아리와 수련에

관한 정보 교류가 활성화 되어 있고 개천절에는 공동 행사도 주최한다.

하지만 아직 뇌호흡에 대한 학생들의 인지도가 부족하고 동아리로 인정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바숨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바숨의 한 관계자는 "동아리방이 없어 회원들이 자주 모이기 힘들지만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활동하며 끈끈한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바숨은 앞으로 학생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대동제 등 학내 축제에 활발히 참가하겠다는 계획이다.

급속히 변하는 세상 속에서 삶의 여유를 찾아 수련하는 바숨 회원들. 한 번쯤 이렇듯 분주함 속에서 평온함을 즐길 수 있는 마음의 쉼터를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

최성민 기자
qwertewq@dongguk.edu



솔직한 성 올바른 성

바람직한 성의 개념

지난해 청소년들의 성을 소재로 흥행했던 영화 '몽정기'를 보고 나오는 관객들은 과장되었다고 하면서도 영화에 서처럼 사춘기시절에 어른들 몰래 잡지나 비디오, 주변의 선배나 친구를 통해서 성 정보를 습득한 경험이 있다며 공감한다. 지금까지 우리들은 성을 비공식적인 공간에서 암묵적으로 배워왔다.

왜곡된 성

'성(性)'이란 글자를 보면서 떠오르는 단어나 느낌, 생각을 한번 말해보려고 하면 처음에는 어색하여 주위의 눈치를 살피다가 한 사람이 용감하게 남녀 성기의 이름을 소리내어 부르며 머쓱하게 웃으면서 다양한 의견들 -Sex, 낙태, 단란주점, 사랑, 호기심, 임신, 성폭력 등- 을 제시한다. 이런 단계를 거치고 나면 자신이 지금까지 성에 대해서 얼마나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부끄러워했는지 알게 된다. 성이란 동전의 양면처럼 더불어 살아

가는 생활이며 자연스런 본능이 아닐까 생각한다. 성(性)이란 글자 그대로 몸과 마음이 합쳐진 개념이다. 즉 몸만의 성(Sex)이 아니라 몸과 마음의 성(Sexuality)을 말한다. 생명, 사랑, 쾌락을 성의 3요소라 하는데 생명이 무시된 성은 낙태를, 사랑이 빠진 성은 미혼모를 만들고 왜곡된 성은 변태를 양산한다. 따라서 3요소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개념의 범위

성에 대한 개념은 자라온 환경과 성장과정 외에도 나이와 성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같은 사람이라도 상황에 따라서 변화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개념을 정의한다. "성(Sex)이란 성행위와 남녀 사이에 신체의 구조적 차이를 근거로 남성과 여성의 성별을 나타낼 때 쓰인다. 그러나 보다 폭넓은 의미의 성(Sexuality)은 가정과 사회에서의 양육

방법과 환경적·사회적 문화적인 영향에 의하여 형성되는 남성다움이나 여성다움과 함께 성에 대한 신념, 가치관, 태도, 지식, 그리고 개인의 성 행태까지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성이란 인간이 자연스럽게 지나게 되는 현상으로 기본적인 욕구이며 표현이다"

성이란 거창한 것도, 무서운 것도, 뛰어나게 아름답고 신성한 것도 아닌 우리 생활의 일부일 뿐이다. 배고프면 밥을 먹고 잠이 오면 잠을 자듯이 성에 대한 것도 우리의 일차적인 욕구일 뿐이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것이나 먹지 않고 아무데서나 자기 않듯이 성 또한 우리 스스로의 의지에 의해 조절이 가능하다. 특히 성은 우리들이 사랑하는 사람과 즐겁고 솔직하게 의사소통을 하도록 해주는 중요한 표현 방법인 것이다.

김은혜
역학생활 상담원

퍼즐-동대신문이 보인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5. 후일까지 남김 필요가 있는 사항을 적는 일.

세로열쇠

1. 사상·신념의 이유로 투옥·구금되어 있는 사람을 이르는 말.
2. 신라 경덕왕 23년(764)에 충담사가 치국 안민의 도리를 읊은 향가의 하나. 삼국유사에 전함.
4. 경영학의 원리를 입업에 적용하여 경영계획의 입안 및 경영 성격의 비판에 필요한 여러 조사 방법을 연구하는 입업학의 한 분과
7. 마음의 움직임. 의식의 상태와 그의 표현된 행동.
8.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음악.
10. 이번 동대신문 학술면에 교수칼럼을 쓴 법대 교수님.
12. 어떤 물품이 한창 쓰이는 철.
13. 새내기 새로 배움터의 줄임말.

가로열쇠

1. 이것을 제출하면 당사국은 해당분야의 시장에 대해 상호 개방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이를 오는 3월말 WTO에 제출한다.
3. 본교 제15대 총장은 000(국어국문학) 교수이다.
5. 사람이 사회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일반사법.
6. 꼭조개 슬픈 서도 민요의 하나. 인생의 허무함을 탄탄하는 사설임.
8. 불교성전의 총칭. 합천 해인사에 간직한 장판은 81258장, 6589권.
9. 국가나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흔히 피지배 계급으로서의 일반대중을 가리킴.
10. 음성의 발음 운동과 그에 따라 생겨나는 음성을 관찰·연구하는 언어학의 한 부분.
13. 대학에 갓 입학한 신입생을 부르는 말.
14. 서로 손을 마주 잡음.

‘퍼즐-동대신문이 보인다’는 발행일자 동대신문 기사에 등장하는 단어를 중심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정답을 적어 본사에 비치된 퍼즐 정답함에 넣어주시고, 정답지에 한하여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이번 호 정답과 당첨지는 3월 24일자 신문에 게재됩니다.

편집자

세 소 식

불교와의 만남

불교를 졸업한 수산스님이 지은 '불교와의 만남'은 불교를 처음 접하는 사람도 이해하기 쉬운 불교교리 입문서이다. 또한 저자가 강의를 준비하며 모은 강의록을 묶은 책이므로 내용이 체계적이다. 불교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줄이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기본적인 불교교리와 핵심사상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했다.

수산스님 저/ 마하아나/ 9천500원.

악역을 맡은 자의 슬픔

'사회귀족의 나라에서 아웃사이더로 산다는 것'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 이 책은 망국적인 사회귀족을 어떻게 타파하고 그 안에서 지식인들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 말해주고 있다. 사회귀족의 실체와 일부 보수 지식인들, 조선일보 등 극우언론의 행적들을 낱말로 파헤친다. 특히 '이회창에게 보내는 편지'에서는 한국 사회귀족의 현주소를 여실히 엿볼 수 있다.

홍세화 저/ 한겨레신문사/ 9천원.

백기완의 통일 이야기

식민지시대에 태어난 지은이가 겪은 분단의 아픔을 통해 통일의 필요성을 서술하고 있다. 경험을 바탕으로 쓰여진 글들은 이 땅 민중들이 겪은 일제식민지 시대의 절망, 분단의 아픔, 제국주의 시대를 살고 있는 현재의 모순을 전한다. 또한 새내기, 동아리 등 아름다운 우리말을 널리 알린 지은이의 우리말 사랑이 이 책에도 고스란히 담겨 있어 눈길을 끈다.

백기완 저/ 청년사/ 1만5천원.

김영하 이우일의 영화 이야기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등의 작품으로 친숙한 소설가 김영하와 '도날드'의 만화가 이우일이 조우한 책. 영화를 통해 익숙한 것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즐거움과 곁들여진 만화를 한 눈에 볼 수 있어 흥미롭다. 후반부에 담긴 '부산국제영화 탐방기'에서는 두 사람이 동행하면서 벌어진 뒷담화를 엿볼 수 있다.

김영하 저·이우일 그림/ 마음산책/ 9천500원.

번쩍하는 황홀한 순간

재담가로 유명한 소설가 성석제가 신간을 냈다.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불법 사냥꾼, 동네 이장들, 자기 일만 댕건인 채 남 일에 참견하는 사람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이번 작품 역시 다양한 삶의 이야기를 웃음과 눈물로 풀어냈다. 갈수록 농담으로 '사람'에 대해 고민하게 하는 짧은 수필 형식의 글들이 실려 있다.

성석제 저/ 문학동네/ 8천800원.

파인만의 여섯가지 물리 이야기

20세기 최고 천재 과학자 리처드 필립 파인만의 물리학 강의 중 가장 재미있고 흥미로운 여섯 편을 담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원자의 운동, 물리학의 기초, 물리학과 다른 과학의 관계, 에너지, 중력, 양자역학이다. 노벨상을 수상한 파인만의 펜 끝을 통해 딱딱하고 지루한 물리 이야기를 재미있고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리처드 필립 파인만/ 승산/ 9천800원.

수습기자 모집광고

발전기금 060-700-0119

독자광고

“대학생활 짜맞추지 말고 동대신문사에서 알차게 채워나가세요”

참신하고 발랄한 2003학년도 동대신문사 주역을 찾습니다

- ▲모집인원 : 00명
- ▲응시자격 : 1학년 남·여 신입생
- ▲제출서류 : 본사 소정양식 1통, 명함판 사진 1장 (지원서는 본사에서 배부중)
- ▲원서접수 : 3월 13일(목) 오후 6시까지
- ▲전형방법 : ① 자기소개서를 작성해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제출
② 면접 및 간단한 시험
- ▲본사 기자에게는 장학금과 활동비·해외연수 등의 특전이 부여됨

신문에 공짜로 광고내세요!!

독자광고는 함께 일할 사람을 모집하거나 하숙집 구함, 야학교사 모집, 동아리·학생회 소모임 등에서 회원을 모집하는 등 분야에 제한없이 독자들의 광고로 이루어집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동대신문사